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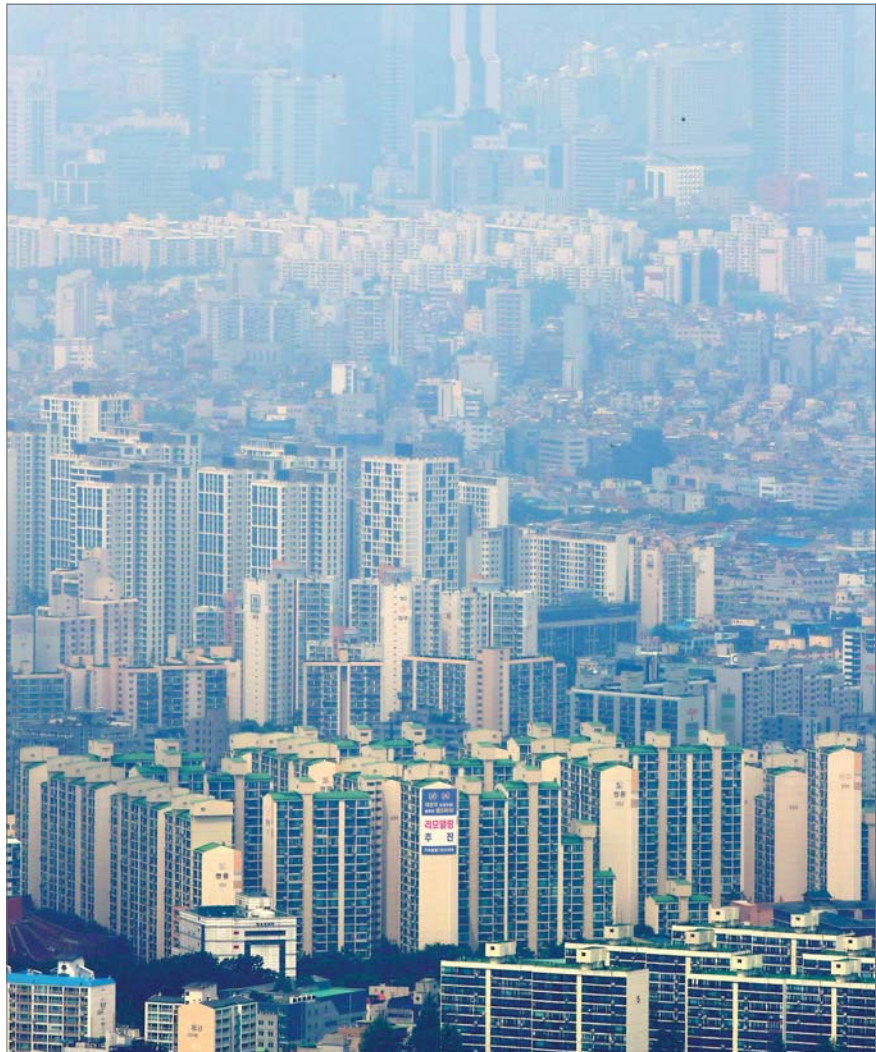


[넘치는 유동성]
민을 건금
'역대 최고가'
03



Economy

→ 코스피	→ 코스닥
2152.41 (0.00)	752.18 (0.00)
↑ 금리 (미국 3년)	↓ 환율 (원/달러)
0.838 (+0.007)	1198.60 (-1.40) (3일)



투기성 매매자 징벌적 과세 추진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코로나 덮친 중견기업 경기 전망 '사상 최악'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가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크게 하락했다. 올해 3·4분기 기준 전망지수가 2017년 3분기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5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전망지수는 75.2로 전분기의 78.7보다 3.5p 하락했다. 관련 지수는 2017년 3분기 처음 조사 당시 91.9를 기록했고, 2018년 4분기에 98.1로 최고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분기별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는 전체 4635개 중견기업 중 500개 기업을 표본추출해 ▲매우 나쁨 ▲다소 나쁨 ▲동일 ▲다소 좋음 ▲매우 좋음으로 응답하도록 한 것으로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숫자가 높으면 전분기에 비해 경기를 긍정적으로,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에서 지수가 70대 중반까지 떨어진 것은 '국내 수요 감소' (81.9%), '해외 수요 감소' (40.1%), '업체간 과다 경쟁' (22.8%), '자금 조달 애로' (16.5%) 등이 주요 이유였다. /김승호 기자 bada@

특히 조사 대상 중견기업들은 코로나19 영향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33.6%가 코로나19의 영향이 '최대 1년', 22.7%는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각각 전망했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들은 버티기 위해 '신규 투자 연기(19.9%)', '급여 삭감 및 인력 감축(16.4%)', '휴업(13.7%)'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응답기업의 39.3%는 별다른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부문별 3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 가운데 제조업 지수가 70.8로 전분기보다 9.2p 하락했다. 반면 비제조업은 78로 오히려 0.6p 상승했다. 제조업 중 전자부품 104.5, 식품료품 80.4, 금속 60.9, 화학 60을 각각 기록했다. 비제조업 중에선 운수(87.8), 출판정보통신(80.3), 건설(79.7), 부동산 임대(72.1) 등이 모두 100아래에 머물렀다. 이런 가운데 중견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 조세 지원' (50.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외에 '긴급운영자금 대출' (27%), '출입국·통관 애로 해결' (10.2%), '조업 재개를 위한 방역 지원' (10%) 등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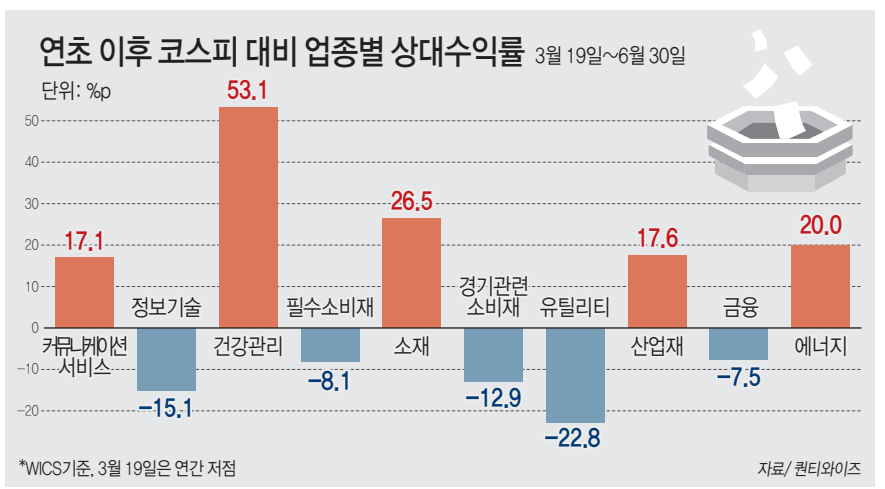
# 바이오 빅3 '시총 100조시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코로나가 만든 증시 새 지형

코스피 제약·바이오주 60% ↑
유틸리티, 금융 등 전통주 약세
하반기 코로나 장기화 전망에
바이오 업종 활약 더 거세질 듯

코스피 바이오 3대장의 시가총액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유틸리티, 금융 등 전통적인 주도주가 약세를 보인 반면 바이오주는 시장 수익률을 크게 상회했다. 바야흐로 '바이오 시대'다. 코로나19가 만든 새로운 시대에 바이오 업종의 활약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5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상반기 코스피 제약·바이오주는 연초 대비 60.2% 올랐다. 해당기간 코스피 지수가 2.9% 하락했다는 점에서 급격한 상승세다. 코스닥 제약·바이오주 역시 35.8% 상승했다. <관련기사 4면>

◆ 바이오가 이끄는 증시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는 업종별 지수 수익률을 극명하게 갈랐다. 제약·바이오 섹터로 분류되는 건강관리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은 시장 수익률을 각각 51%포인트, 29%포인트 상회했다. 반면 유틸리티, 금융 업종은 시장수익률 대비 16%포인트 이상 하회했다. 코스닥 지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모두 회복했다. 지난 3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로 지수가 폭락하기 전 수준인 2200



선 회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연초 보다는 12.3% 올랐다. 코스닥 내 건강관리 섹터의 비중이 약 30% 수준으로 높기 때문이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제약 바이오 업종은 2015년부터 관심을 갖게 된 파이프라인들의 성과도 출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실적이 급등한 기업들이 발생하면서 팬더멘탈(기초체력)이 강해졌다"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주가가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식투자와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폐지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해 오는 9월 15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한 상태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 홀로 순매수세를 유지하며 수급을 이끌었다. 지난 3일 기준 연초 이후 개인투자자들은 코스닥시장에서 7조5648억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셀트리온헬스케어(4057억원), 씨젠(2543억원), 메디톡스(2300억원), 제넥신(197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바이오 시총 100조 시대 SK바이오팜의 등장은 제약·바이오 주 상승세에 불을 지폈다. 지난 3일 SK바이오팜은 상장 이틀 만에 공모가(4만 9000원) 대비 236.7% 상승한 16만 5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시초가는 공모가의 200% 수준에서 형성됐고, 이후 두 번의 상한가를 기록한 탓이다. 시가총액은 12조 9217억원으로 바이오 공룡이 됐다. SK바이오팜과 함께 코스피 대장 바이오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도 함께 달렸다. SK바이오팜의 상장 기대감이 불거지기 시작한 6월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4.0% 올랐고, 셀트리온은 45.0% 올랐다. 시총은 각각 51조 132억원, 41조 7637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4면에 계속>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삼성-LG '에너지 효율 1등급' 불꽃경쟁

'으뜸효율가전 환급사업' 정조준
가전시장 '1등급' 라인업 확대
세탁기·건조기 등 리뉴얼 출시도
가전 시장이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으뜸효율 환급 사업이 수요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도 1등급 라인업을 대폭 확대하면서 소비자 선택폭도 크게 늘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에 1500억원 예산을 추가로 지원키로 결정했다. 사업이 코로나19로 위축된 가전 시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3월 23일 사업을 시작한 후 3개월간 국내 주요 가전 업체 7개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이



삼성전자 그랑데 AI, /삼성전자 LG전자 트롬 워시타워, /LG전자

전년 동기 대비 약 2.3배 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가전 업계에 치열한 '1등급' 경쟁을 촉발했다. 지난해 처음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이 변경된 이후 1등급 제품은 거의 없었지만, 올 들어 주요 가전 분야에서 출시 리시가 이어진 것.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뜨거운 각축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출시한 신

형 모델까지 다시 리뉴얼해 출시하면서 환급 사업 수혜를 노리는 모습이다. 대표 제품은 세탁·건조기다. 삼성전자가 올 초 1등급을 달성한 그랑데 AI 세탁기와 건조기를 내놨고, LG전자가 올 초 트롬 세탁기에 이어 최근 건조기까지 1등급으로 리뉴얼 출시하면서까지 뒤를 따랐다. <6면에 계속> /김재홍 기자 juk@



주인 바뀐 코웨이, 노조로 몸살... 무슨 일이

# ‘직접고용’ 큰 틀 합의해 놓고... ‘연차’ 등 디테일 발목

## 코웨이 임단협 ‘강대강’ 대치

사측 “핵심 근로조건 이미 합의  
협상안 노조서 일방적 파기했다”

노조 “노조 무력화 위한 인력양성  
사측행동 ‘불법’ 판단하고 있다”

코웨이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을 놓고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특히 코웨이의 주인이 웅진그룹에서 넷마블로 바뀌는 과정에서 불거진 CS닥터 노조와의 줄다리기가 갈수록 팽팽해지면서 향후 코웨이내 또다른 코디·코닥 노조, CL노조와의 임단협도 험로가 예상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의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에는 코웨이의 경우 CS닥터 1500여명, 코디·코닥 3500여명, 그리고 팀장·지국장 등 관리자급(CL) 700여명 등 3개 노조에 걸쳐 총 6000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돼 있다.

가전통신서비스노조에는 코웨이 3개 지부 외에도 SK매직서비스지부, 청호나이스지부가 소속돼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웨이 CS닥터노조는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을 불



서울 중구에 있는 코웨이 본사.

법으로 간주해 지난 3일 서울지방법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6일부터는 코웨이 대주주인 서울 구로구 넷마블 본사에서 무기한 집회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코웨이는 노조의 일방적인 임금 합의안 파기와 파업 돌입에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본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가치UP 아카데미’를 통해 제품 설치 및 AS를 담당할 전문가 1500여명을 양성, 비상시를 대비해 고객들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웨이와 제품 설치기사인 CS닥터노조와의 임단협 문제는 지난해 10월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노조가 기존 개인사업자였던 CS닥터의 ▲회사 직접 고용 ▲기본급 인상 ▲근속기간 인정 ▲식대 등 복리후생 제공 등을 주장하며 파업에 들어가면서다.

이 과정에서 기본급(월 기준)을 놓고 사측은 225만원, 노조는 240만원을 각각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측의 팽팽했던 협상은 코웨이가 1542명에 달하는 CS닥터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실마리를 찾았다. 기본급도 노사가 수용할 만한 수준까지 접근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지난 2월 대표교섭에서 CS닥터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근로 계약 체결 시점부터 근로기간 적

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으며 이 원칙에 따라 노사가 업계 최고의 보상 수준으로 임금안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합의했다. 이때가 지난달 10일이었다”면서 “그런데 노조가 앞서 상호간 합의한 임금협상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또다시 파업에 돌입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임단협을 놓고 95% 수준까지 도달했던 CS닥터 노조가 재파업에 돌입키로 한 것은 바로 ‘근속 연수에 따른 연차’ 문제다.

노조 관계자는 “근속 연수를 다 인정 해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는 이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안된다. 근속 연수와 연차는 쌍둥이와 같은 것이다. 일한 기간 만큼의 연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측이 (당초 약속했던) 합의를 틀어버린 것으로, 노조는 끝까지 이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코웨이는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교육을 통해 정수기, 비데 등 제품 설치와 AS가 가능한 ‘제품기술 전문가 집단’ 1500여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300명 정도를 이미 확보했고, 추가로 600명에 대한 추가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전문인력은 평소엔 제품 개발, 품질 관리, 마케팅 등 자신의

‘주전공’에 전념하다가 비상시에 현장에 투입돼 제품 설치 등 ‘부전공’ 업무를 하게 된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에 대해서도 납득이 안된 시기를 보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교육을 통해 자체적으로 양성하겠다고 한 숫자 1500여명은 바로 CS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수와 같은 수준”이라며 “노조가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아예 대놓고 대체인력을 양성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노조는 사측의 이같은 행동을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웨이 사측도 물러설 태세가 아니다. CS노조가 원하는 수준을 모두 들어준 만큼 이젠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코웨이 관계자는 “회사는 노사 상생을 목적으로 렌탈업계에서 유일하게 CS닥터 노조원 1542명의 원청 직고용을 결정했으며 기본급 인상, 호봉제 도입 등 노조측이 요구했던 대부분의 사항을 받아들여 합의를 이끌어왔다”면서 “하지만 CS닥터 노조가 일방적인 말바꾸기를 통해 상생을 외면하고 있어 안타깝다. 회사는 노조 파업에 따른 고객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최태원-정의선, 이번주 전기차배터리 협력 논의

(SK 회장)

(현대차 수석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남 등  
정의선, 배터리 3시간 회동 마무리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이르면 이번 주 초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전기차 배터리 관련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로써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지난 5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만남으로 시작된 현대차-배터리 3사 간 회동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정 수석부회장은 이번 주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사업장을 방문하기로 하고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초 충남 서산 소재 SK이노베이션 공장에서 만나 배터리 관련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부회장은 지난 5월 이재용 삼성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5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 대화’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부회장, 지난 6월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만날 때도 각각 천안 삼성SDI, 오창 LG화학 공장을 직접 방문했다.

SK이노베이션은 내년 초부터 양산되는 현대·기아차의 전용 플랫폼(E-GMP) 기반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한다. 입찰을 거쳐 약 5년간 10조원 규모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주로 기아차 전기차에 SK이노베이션 배터리가 사용돼 왔는데 앞으로는 현대차의 주력 전기차로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다.

현대차는 그간 코나·니로 등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 차 모델에서 엔진 등

내연기관을 제거하고 그 공간에 전기모터를 설치해 만들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전기차 전용 모델이 출시된다. 전기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용 플랫폼(E-GMP)을 개발한 것이다. 전기차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전용 배터리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다.

재계에서는 최태원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재벌가 후계자로 어릴 때부터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만큼 이번 만남에서 다른 성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기차 배터리 협력 방안과 더불어 새로운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기아차는 2025년까지 총 44종의 친환경차를 선보일 예정이며, 이중 절반이 넘는 23종을 순수 전기차로 출시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

## 3차추경예산 35.1조 3개월 내 75% 집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시대 대비를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6일부터 집행된다. 정부는 경제 위기 대응 시기가 중요하다고 판단, 앞으로 3개월 내에 추경 예산의 75%를 집행할 방침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이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각 부처는 6일부터 집행에 돌입한다.

3차 추경 예산은 정부안에서 2000억원 각인 35조1000억원으로 1차 11조 7000억원, 2차 12조2000억원보다 약 3배 많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졌던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훌쩍 뛰어 넘는 규모다.

정부는 앞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안에 75% 이상을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초까지 이번 추경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집행될 전망이다. 이미 1차 추경은 90%가 집행됐고, 2차 추경은 거의 다 소진됐다. 정부는 3차 추경 역시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파악해 빠르게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9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 예산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여기에 4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도 투입한다.

/한용수 기자 hys@

## 中, 하반기 5% 성장 예상... 日, 수출·소비 등 부진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발표

올해 하반기 중국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이 가장 컸던 상반기의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반면 일본 경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부진이 점차 개선되었지만 연간으로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중국 및 일본의 경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에 따르면 중국 실물경기는 2분기 들어 생산 정상화로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한은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생산 정상화 및 소비 회복세 등으로 2분기 이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라며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부진이 완화되는 데다 중국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 정책으로

하반기에는 5%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경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긴급사태선포 등으로 생산과 수출, 소비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크게 부진한 모습이다.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고용상황도 악화됐으며, 물가는 수요둔화와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전환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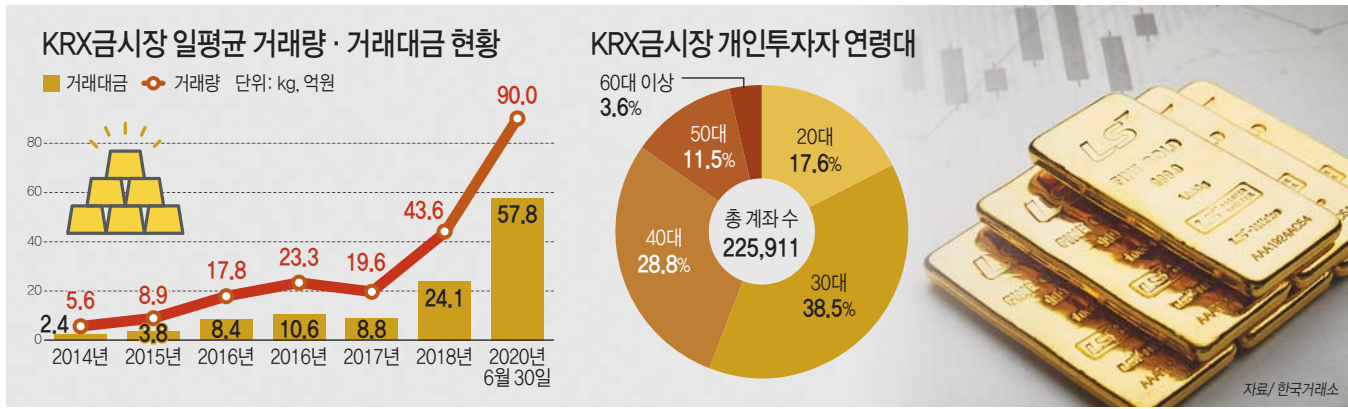
# 부동산도, 펀드도 못 미더워... 믿을 건 金 ‘역대 최고가’

금값 지난해보다 21.91% 올라 절반이상 30대 이하...큰손 부상  
금 관련 펀드 수익률도 호조  
“코로나19 진정돼도 매력 여전”

0%대 초저금리 국면에서 부동산 시장 규제와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금으로 향하고 있다. 지수 방향성이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금으로 향한 자금 이동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모펀드 사고가 불러온 금융시장 신뢰도 하락도 인플레이션 헤지(위험회피) 자산으로서의 금의 인기를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 1g의 가격은 전 거래일(3일) 종가 기준 6만8600원으로 지난해 말(5만6270원)보다 21.91% 올랐다. 금시장이 개설됐던 2014년 말(4만2330원)과 비교하면 62.06% 상승한 수준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약 5년 반 동안 상승분의 3분의 1이 이번 상반기 때 이뤄졌다”며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영



향 등으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며 지난 하반기부터 빠르게 올랐다”고 말했다.

5일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KRX금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57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8% 증가한 수치다. 누적 거래대금도 7103억원에 달한다.

특히 금 시장은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았다. 전체 거래비중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한 비중은 63.2%로, 지난해보다 7.1%포인트 올랐다. 반면 실물사업자는 18.2%로 같은 기간 8.9%포인트

줄었고, 기관은 18.7%를 차지하며 1.9%포인트 늘었다.

다만 연령층이 높을수록 참여비중은 낮았다. 시장참가자의 56.1%가 30대 이하로 가장 많았고, 40대(28.8%), 50대(11.5%), 60대 이상(3.6%)이 뒤를 이었다.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지수 폭락을 계기로 금현물을 투자수단으로 인식하는 젊은층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선 지난 1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6만9050원)도 머지않아 다시 써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전례 없는 유동성을 공급

한 데다 물가 급등으로 인한 현금 가치 하락 때문이다. 민병규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리스크 회피심리와 국제금리 급락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이 동시에 발생했다”며 “물가 급등으로 인한 현금 가치 하락은 금의 가격 상승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금값도 1800달러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6%(10.10달러) 오른 1790달러를 기록했다. 미국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금 가격이 3개월 뒤면 1800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6개월 후 1900달러, 1년 뒤에는 2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았다.

금값이 오르면 금 관련 펀드 수익률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설정액 10억원 이상 금 관련 펀드들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수익률은 17.84%로 집계됐다. 최근 1년간 평균 수익률은 27.64%로 에프앤가이드가 분류하는 43개 국내 테마별 펀드 중 압도적이다.

일각에선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면 안전자산인 금의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실물자산으로서의 금의 매력도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역사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대규모로 진행됐다”며 “이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심리가 강화되더라도 달러 강세 압력이 완화되면 금값 상승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 SK바이오팜 후속주자는? IPO대어 노리는 30조 청약자금

주식 청약금 50조 최초 돌파  
SK바이오팜 환불금에 31조  
동학개미운동 ‘빚투’ 등 기인  
하반기 빅히트 상장에 관심

국내 증시의 투자자예탁금(고객예탁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국내 증권사 투자자예탁금은 총 5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998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투자자예탁금은 주식 매매를 위해 증권사 계좌에 입금된 대기 자금이다. 지난 25일 46조3000억원에서 하루만에 4

조2000억원이 유입돼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 ◆31조원 몰린 SK바이오팜 환불금

예탁금이 50조원을 기록한 데에는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 환불금이 큰 몫을 했다. 지난 26일은 SK바이오팜 증거금 환불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마감된 SK바이오팜 공모주 일반 청약에는 30조9889억원의 증거금이 모였다. 기존 제일모직이 달성한 30조649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증거금 기록을 깨면서 화제를 모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에 신용거

래용자 잔고 역시 불어났다.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개인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으로, ‘빚투(빚내서 투자)’를 상징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6일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12조5500억원을 기록했다. 전일(12조4400억원) 대비 1000억원 넘게 늘어난 금액으로 올해 사상 최고치다.

이밖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저금리 기조와 마땅한 투자처가 부족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발생한 현상”이라며 “올해 들어 신용거래용자 잔고가 급증한 것은 ‘동학개미운동’이 벌어지면서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개인이 많아졌다는 의미이다”라고 말했다.

### ◆직접투자 선호 개인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유입된 것도 투자자예탁금 상승에 기여했다.

올해 1월 2일 기준 29조8599억원에 불과했던 투자자예탁금은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가가 폭락하자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3월 이후 국내 사모펀드 자금이 4개월 연속 순 유출을 기록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국내 사모펀드 자금은 4조9126억원 줄어 들었다.

지난 1월 7071억원, 2월 1조6355억원으로 순유입세를 보인 사모펀드 자금은 3월(-1조4662억원), 4월(-1조6144억원), 5월(-1조4271억원), 6월(-4049억원) 순 유출을 보였다.

저금리 기조에 더 이상 펀드투자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닐뿐더러 리스크 자산운용·옵티머스 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이 그 이유로 꼽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자 시세 차익을 노린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시장 직접 투자에 뛰어들었다.

한편 증시 주변 대기 자금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특히 IPO 대어급 상장이 잇따르고 있어 SK바이오팜에 몰렸던 묵혀둔이 계속 증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5월 28일, 카카오게임즈는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이 밖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등이 하반기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박미경 기자 miyoung96@

## 문경 ~ 상주 ~ 김천

# 중부내륙철도건설!

상주 시민의 힘으로  
끊어진 구간을 연결해  
지역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상주시**  
SANGJU CITY



# 주식대표 세대교체... BBIG 주전, 제조·은행 '후보군'

(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

## 시가총액으로 본 주력산업 변화

상위 10개 종목서 시총 100조 늘어  
삼성바이오로직스 11.6조 늘어 1위  
이어 셀트리온·네이버·LG화학  
최대하락 10개 종목서 총 70조 ↓

올해 상반기 증시에서 바이오, 2차전지, 정보기술(IT) 업종 성장주들의 시가총액이 크게 늘어났다.

증가 상위 10개 종목을 합쳐 100조 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제조업과 은행 등 기존 대장주들은 몸집이 크게 쪼그라들며 자리를 내줬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내 증시에서 시총이 가장 많이 증가한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였다. 지난해 말 28조6494억원에서 지난달 30일 51조2778억원으로 22조6284억원



(79.0%) 늘었다.

이어 10조원대 증가를 증가세를 보인 셀트리온 18조623억원(77.8%), 네이버 13조1207억원(42.7%), LG화학 12조2125억원(54.5%), 카카오 10조2천527억원(77.5%) 등이 뒤를 이었다. 셀트리온헬스케어(8조7843억원), 삼성SDI

(8조7675억원), 엔씨소프트(7조6839억원), 셀트리온제약(3조1천871억원), 알테오젠(2조83억원) 등의 시총 상승 폭도 눈에 띈다.

이들 10개 종목의 시총 증가 규모는 107조4997억원에 달했다. 시장에서 이른바 'BBIG' (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

임)로 불리며 최근 증시 상승세를 이끈 대표적인 성장주들이다.

반면 기업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진 10개 종목의 상반기 시총 하락 규모는 70조원에 달했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시총이 같은 기간 333조1138억원에서 315조245억원으로 17조993억원(5.4%) 떨어졌다.

신한지주(6조8314억원), SK하이닉스(6조5520억원), 현대모비스(6조1480억원), 삼성생명(5조9600억원) 등의 시총 감소폭도 컸다. KB금융(5조6966억원), POSCO(5조4491억원), 한국전력(5조3284억원), 기아차(4조9657억원), 현대차(4조871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코스피 시총 상위권에 속하면서 오랜 기간 한국 증시를 대표해 온 종목들이다. 이들 10개 종목의 시총 감소 규모는 총 69조7122억원에 달했다.

종목 간 희비가 엇갈리면서 시총 상위 기업의 순위도 많이 바뀌었다. 10년

전인 2010년 7월 5일과 비교하면 시총 상위 10사 중 전 거래일(3일)까지 10위권을 지킨 곳은 삼성전자(1위 유지), LG화학(7위 유지) 뿐이다. 당시 2위였던 포스코는 17위까지 내려왔고, 3위였던 현대차는 언택트 대표주로 떠오른 카카오 등에 밀려 11위로 떨어졌다.

증시 주도 종목의 변화는 산업지형 전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Untact·비대면) 경제가 집중 조명을 받으며 변화를 가속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그동안 국내 증시의 정체 원인은 산업 성장의 성숙도가 높아진 제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이라며 "규모의 경제가 한계에 도달하고 범위의 경제 시대에 진입하면서 증시가 구조적 전환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 신협 대출구역 확대... 유사업권 경쟁 시작

금융위, 신협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권역 외 대출, 신규대출 3분의1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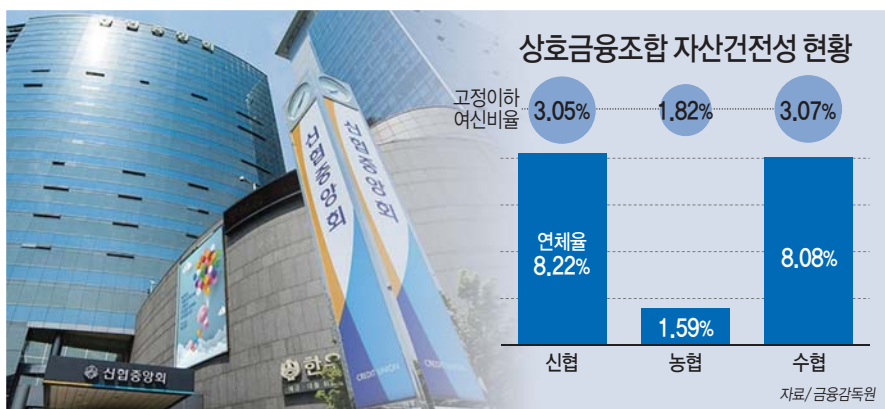
신협동조합의 대출가능 영업구역이 시·군·구 단위에서 10개 광역권으로 확대된다.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수협 등 유사업권과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신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법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8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을 보면 신협은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나눠 대출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되, 권역 외 대출은 신규대출의 3분의1 이하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대출영역을 기초지자체로 제한했지만, 대출 권역을 확대해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등 유사업권과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사업권 내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가 4.77%로 지역농협(4.22%)와 새마을금고(4.58%)와 유사한 신협이 대출 시장에 합류하면서 0.1%포인트라도 낮춰 고객을 끌어모으려는 금리경쟁이 본격화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격화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신협이 어떤 고객군을 중심으로 영업권역을 확대할 지 정해지지 않아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지방에 기반을 두고 영업하는 업권에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경쟁자가 늘어나 금리경쟁을 하는 한편 비대면 분야 영업에 주력하는 곳들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협의 대출 업권 확대가 오히려 비영리 법인이라는 신협의 설립목적에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출권역이 확대되면 자산규모가 큰 신협을 중심으로 지역 내 2~3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신협들이 인수합병 될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지역 내 신협이 없어지면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이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 전국 신협 지역 조합은 66곳중 75%가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새마을금고나 지역농협 등은 자기자본비율과 유동성 비율 등의 규제나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신협은 순자본비율 2% 이상의 규제만 있을 뿐 유동성 비율에 대한 제약은 없기 때문이다. 신협의 연체율도 지난해 9월 기준 3.22%로 새마을금고(2.21%)나 지역농협(1.59%)과 비교해 높은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상호금융권 관리 감독하는 부처가 각기 달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며 "금융사고나 리스크 관리 등을 감안하면 하나의 부처로 통일해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바이오 투자심리 美 대선 전까지 계속될 것"

>> 1면 '바이오 빅3 시총...'서 계속

이에 따라 코스피 내 바이오 3개 종목의 시총 합산 105조원을 넘겼다. 반도체 대장주이자 코스피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62조1714억원)를 가뭏키 넘어섰다.

바이오 업종의 활약은 하반기에 더

거세질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저금리 현상이 바이오 등 성장주의 강세를 이끌 예정이고, 코로나19가 하반기에도 확산세가 계속될 것이라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주요국 중앙은행과 정부의

유동성 공급과 재정지출 확대가 지속해서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추세는 백신의 효력이 증명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느정도 벗어나야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코로나19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고 판단, 바이오 업종 투자에 대한 건조한センチ멘트는 최소한 미국 대선 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상반기 위조지폐 129장... 전년비 19% ↓

만원권 60장, 5천원권 48장 순

올해 상반기 위조지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반기 중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129장이다. 전년 동기 대비 31장(-19.4%), 전기 대비 3장(-2.3%)이 줄었다.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지난 2017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5만원권 위조가 줄었다.

위조지폐의 액면금액 합계는 140만원으로 5만원권 비중이 줄어들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6만원(-47.4%) 감소했다.

권종별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만원권이 60장으로 가장 많았고 ▲5000원권 48장 ▲5만원권 11장 ▲천원권 10장 등의 순이다.

한은 관계자는 "만원권은 5만원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조가 용이하면서 5000원권 및 천원권보다는 액면금액이 커 위조 유인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5000원권은 지난 2013년 5월 대량 위조범이 검거된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발견자별 위조지폐는 한국은행 38장, 금융기관 87장, 개인 4장 등이다. 주로 금융기관의 화폐취급과정에서 발견됐다.

금융기관 발견 기준 위조지폐 87장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견된 위조지폐가 68장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 3일 화폐위조범 검거에 공로가 많은 경찰서에 대해 한은 총재 포상을 실시하고 소정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인상 연말까지 연장

고용부, 사업주에 최장 1년 지급

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정부가 임금 감소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 단가 인상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액 인상 조치를 기존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노동자가 가족 돌봄, 임신, 학업, 은퇴 준비 등을 위해 주 40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정부가 임금 감소분 보전금, 간접 노무비, 대체 인력 지원금 등을 사업주에게 최장 1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지난 3월 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해 중소기업

의 간접 노무비의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졌다.

당초 올해 6월 말에 기한이었던 워라밸 장려금 지급액 인상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는 것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문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사업주가 장려금을 받으려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해야 했지만, 정부는 이를 완화해 개별 근로계약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노동자 기준)은 올해 1~3월만 해도 월평균 1781명이었으나 4월 2316명, 5월 3792명, 6월 6192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지원 대상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46.4%)이 가장 많다.

/한용수 기자 hys@



# “코로나는 기회다” 손태승의 역발상

〈우리금융그룹회장〉

**우리금융그룹 경영전략 워크숍**  
“진정성 통해 고객 신뢰도 높여야”  
고객중심 경영·디지털 혁신 등 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세상의 변화는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난 3일 우리은행 본점 시너지홀에서 언택트(Untact·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2020 하반기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그룹사 임직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적극 고려해 온·오프라인 연계 방식의 워크숍으로 간소화해 진행했다. 워크숍에는 손태승 회장 및 자회사 CEO 등 50여명의 그룹사 주요 임원은 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본부장급 등 다른 참석 대상 직원은 비공개 유튜브 방송을 통해 비대면 채널로 참여했다.

손태승 회장은 “고객은 물론 기업이나 직원들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다”며 “코로나



지난 3일 본점 시너지홀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하반기 핵심 경영전략을 제시했다. /우리금융그룹

로 인해 예상되는 건전성 악화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도 매우 중요하지만 언택트와 같은 세상의 변화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손 회장은 그룹의 하반기 핵심 대응전략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 ▲고객중심 경영 강화 ▲디지털 혁신 ▲경영효율화 ▲그룹 확장 및 시너지 등을 제시하며 경영 목표를 달성할 것을 역설했다.

손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비대

면 트렌드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고객을 향한 진정성을 통해 그룹에 대한 고객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라며 자회사는 고객가치 혁신을 강화하고 임직원들의 마음가짐도 새롭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우리금융그룹은 이날 행사를 간소화하고 절감한 비용을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했다. 안성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인근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에 1억원을 기부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 기보, VC 추천기업에 최대 50억 보증

벤처기업 투자매칭 특별보증 시행  
K-유니콘 프로젝트 핵심사업  
최대 100억 투자유치 효과 전망

기술보증기금이 벤처캐피탈(VC)들의 추천 기업을 추가로 보증하는 상품을 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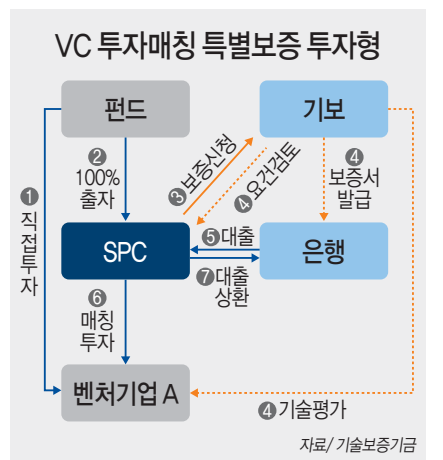
VC로부터 투자받은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 초기 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가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보는 투자와 보증을 매칭한 레버리지 프로그램인 ‘VC투자매칭 특별보증’을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관련 상품은 지난 3일부터 내놨다.

‘VC투자매칭 특별보증’은 예비유니콘 특별보증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벤처 4대강국 실현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 핵심사업 중 하나다.

펀드가 작더라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VC)이 추천한 기업에 기보가 최대 50억원까지 보증하거나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투자를 추가 지원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이다.

기보는 앞서 우수 민간 벤처캐피탈 60여개사로 구성된 ‘기보VC파트너스’를 구성한 바 있다. 이들 VC파트너스를 통해 민간이 투자하고 추천한 기업에 기보가 전폭 지원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VC 투자매칭 특별보증을 통해 자금에 목마른 기업들은 벤처캐피탈의 투자에 기보의 보증이 더해지면서 최대 1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대출형’의 경우 VC파트너스가 추천한 최근 6개월 이내에 2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기보가 최대 50억원을 한도로 보증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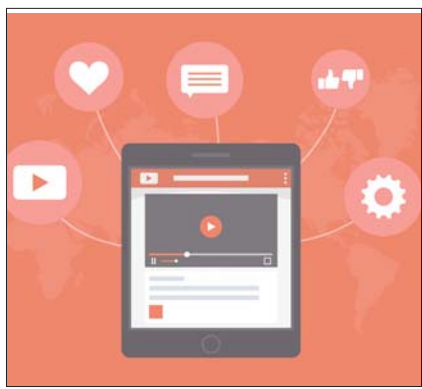
아울러 ▲보증비율 상향(85→95%) ▲고정보증료 1%(보증 1.2%) ▲20억원 이내에서는 투자금액 또는 추정대출액의 2분의1까지 지원하는 등 우대 사항을 제공한다.

‘투자형’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벤처펀드에서 100% 출자한 SPC를 설립하는 경우 이를 대상으로 최대 5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bada@

# 저축銀, TV광고 규제 풀렸지만 ‘온라인行’

하루종일 TV광고 송출 가능  
SNS·유튜브 홍보효과 극대화  
요리 레시피, 가요 등 콘텐츠 제작



/유튜이미지

밤 10시 이후에나 저축은행 TV광고가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최근 5년만에 저축은행 광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하루 종일 TV 광고 송출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그간 저축은행은 TV 광고 규제를 받으면서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유튜브를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규제를 극복했다는 입장이다. 당국의 뒤늦은 규제 완화에 대해 업계 분위기가 냉랭한 이유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저축은행 업계 가운데 TV광고를 하는 저축은행은 OK저축은행 한 곳에 불과하다.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JT천애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은 SNS나 유튜브를 통해 각기 다른 콘텐츠를 기획하고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홍보의 트렌드가 5년 전과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앞서 저축은행들은 TV 광고 규제에 맞서 각종 돌과귀를 찾아 TV대신 유튜브로 활동 영역을 넓혀왔

다. 현재 유튜브 트렌드에 많은 산업군이 도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저축은행들이 TV광고로 다시 눈을 돌릴 필요가 딱히 없다는 분석이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3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SBI저축은행은 유튜브를 통해 상품설명과 각종 캠페인, 당을 충전할 수 있는 요리 레시피, 과거 유행했던 대중가요를 담은 콘텐츠 등을 유튜브에서 선보이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최근 배우 신성록을 모델로 앞세워 각종 영상을 공개했으며 ‘짤테크톡’이라는 주제로 재테크를 주제로 한 콘텐츠를 만들기도 했다.

최근에는 JT천애저축은행의 모기업

J트러스트 그룹이 자사 채널 ‘점프TV’를 개설했다. 공식 브랜드 유튜브 채널 ‘J TRUST’와는 다른 성격의 채널을 또 하나 기획한 것이다. 새로 만들어진 채널에서는 광고 모델인 배우 이훈과 회사 직원이 함께 출연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모습을 영상을 선보이고 있다.

또 2016년부터 저축은행 업계 최초로 진행해 오고 있는 반려견 마케팅의 장점을 살려 반려견 셀프 미용 도전, 반려견 소독제 만들기 등의 영상 또한 제공 중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TV광고보다는 유튜브 등 SNS를 통한 홍보가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 최근에서야 풀린 TV광고 규제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TV광고 규제를 받기 전에는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TV광고가 필요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자산건전성도 높아지고 업계 이미지도 개선되면서 TV광고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유튜이미지

# 자칭 주식전문가가 종목 추천... ‘리딩방’ 주의

## 금감원 Q&A

Q. 주식투자에 관심이 있어 주식 관련 인터넷카페 등을 자주 방문하곤 합니다. 최근 주식 전문가가 종목 추천 등 투자 조언을 해주는 채팅앱 단체 대화방을 추천 받게 됐습니다. 전문가가 추천해준다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는데 이런 전문가가 운영한다는 단체 채팅방 믿을만 할까요?

A.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리더’ 혹은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인가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돼 있습니다.

유선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리딩방 운영자들이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가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주식리딩방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 및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했다가 의도치 않게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돼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영석 기자

# NH농협銀 ‘DT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NH농협은행이 고객과 함께하는 ‘DT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7월 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비대면 채널(농협인터넷뱅킹, NH스마트뱅킹, 올원뱅크)에 대한 ▲ 서비스·디자인 개선 의견 ▲

(신규) 금융상품 아이디어 ▲ 신규 서비스 아이디어(디지털 신기술, 킬러 서비스 등)이며 각 비대면 채널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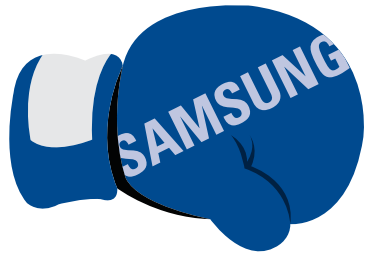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고객은 100만원의 상금을,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상품권(1만원)을 제공한다. 선정 결과는 8월 21일 별도 통지 예정이다.

농협은행 장승현 수석부행장은 “이번 공모전은 다양한 고객 의견을 금융 서비스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취지”라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시스템 개선과 혁신 상품·서비스 도입에 활용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다같은 '에너지 1등급'은 NO! 더 똑똑하게 고르려면? 삼성 '셀프케어' vs LG '자동케어'



>> 1면 '삼성-LG 에너지 효율'서 계속

신규 환급대상에 건조기 '총 11개' 삼성, 에어살균으로 실용성 초점 LG, 트루스팀 내세워 기능 무게 냉장고는 디자인 vs 기능 차이점

4월 출시한 위시타워도 출시하지 불과 2달여만에 건조기까지 1등급을 달성한 신모델을 선보이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9kg 소용량 건조기도 1등급 인증을 받으며 맞불을 냈다.

정부도 경쟁 구도에 기름을 부었다. 당초 건조기는 으뜸효율 환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3차 추경으로 새로 포함시켰다. 환급 대상 가전은 총 11개로 늘어나게 됐다.

프리미엄 TV 시장도 뒤늦게 1등급 경쟁이 시작됐다. 삼성전자가 QLED TV인 QT67 라인업 6개에 대해 1등급 인증을 획득하는데 성공하면서다. LG전자도 최근 55형과 65형 나노셀 TV에 1등급 인증을 받으며 환급 사업 대상 제품을 추가하는데 성공했다.

프리미엄 냉장고도 1등급 시대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지난 2일 최상위 라인업인 셰프컬렉션과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를 출시하면서 에너지 효율 1등급을 강조하고 나서면서다.

앞서 삼성전자는 디자인을 승부수로 한 비스포크 냉장고도 1등급을 달성하며 환급사업에 적지 않은 효과를 입었다. LG전자도 주력 상품인 디오스 얼음 정수기 냉장고에서 1등급 달성에 실패했지만, 일반 냉장고로는 상당수 모델을 환급 대상으로 판매 중이다. 김치 냉장고도 양사 모두 1등급 모델을 다수 판매하고 있다.

아직 스탠드 에어컨 시장은 1등급 제



삼성전자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QLED TV



LG전자 나노셀 TV.

/LG전자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이 '뉴 셰프컬렉션' 냉장고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프리미엄 빌트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인 아일랜드 와인셀러와 서랍형 냉장고. /연립뉴스

품이 전무한 상태다. 다만, 양사 모두 벽걸이형 에어컨에서는 1등급 제품을 판매 중인 상태로, LG전자는 지난달 업계 최초로 상용용 스탠드에서 1등급 제품을 출시하며 전선 확대를 예고했다.

공기 청정기 역시 양사 모두 1등급 제품을 판매 중이다. 삼성전자가 큐브와 블루스카이, LG전자 퓨리케어 등이다. 아울러 LG전자는 제습기와 정수기 부문에서도 1등급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양사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리 철학이다. LG전자가 로봇을 도입하는

등 '자동'에 집중하는 동시에 '케어 솔루션'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일반 구매 고객에도 렌탈 서비스와 같은 관리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대면 서비스를 지양하며 '셀프 케어' 편의를 늘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대표 제품이 건조기다. LG전자는 일찌감치 트롬 건조기에 콘텐츠 자동 세척 기능을 도입했지만, 삼성전자는 올해 출시한 그라데AI 건조기에 콘텐츠 세척 뚜껑을 편리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제작해 사용자가 언제든지 세척할 수

있도록 했다.

냉장고도 LG전자는 케어 솔루션을 통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삼성전자는 셰프 컬렉션에 정수기 필터 교체 부분을 '윈터치' 방식으로 설계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교체 방식을 설명하는 방법을 택했다.

주요 기능에서도 차별점이 있다. LG전자는 자사 특허 기술인 '트루스팀'을 앞세워 건조기에까지 적용하는 사이, 삼성전자는 건조기에 특별한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에어 살균+'을 강조하

는 등 실용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가격면에서는 삼성전자 제품이 다소 저렴한 편으로 알려졌다. 16kg 건조기를 기준으로 출고가 삼성전자 그라데 AI는 180만~190만원대, LG전자 트롬 건조기는 214만~234만원이다.

양사가 판매 실적을 공개하지 않는 탓에 실제 소비자 반응은 베일에 쌓여 있다. 단, 각각 장단점이 분명해서 마케팅 경쟁도 치열하다고 현장 관계자는 귀띔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 'LG 벨벳' 패셔니스타 투표하고 선물도 받고

LG전자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마케팅의 일환으로 LG 벨벳 베스트 드레서 투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LG 벨벳의 매력적인 디자인과 가장 잘 어울리는 패셔니스타를 뽑는 이번 이벤트는 이달 3일부터 15일까지 진행 된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LG전자 페이스북에 접속해 LG 벨벳 체험단 이 촬영한 콘셉트의 사진 총 8장 가운데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 댓글을 남기고 다른 친구를 태그하면 된다. LG전자는 투표에 참여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2명을 선정해 LG 벨벳 스마트폰을 증정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 5월 15일 LG 벨벳을 출시하고 약 4주간 300명 규모의 LG 벨벳 체험단을 운영했다.

체험단은 라이프스타일과 패션·뷰티 등으로 분야를 나눠 활동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SK이노, 협력사 25곳에 상해 보험 패키지 제공

국내 최초 단체보험 패키지 지원

SK이노베이션 울산 콤플렉스(CLX)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행복한 사업장 만들기 위해 나섰다.

SK이노베이션 울산 콤플렉스는 지난 3일 SK이노베이션 울산CLX 본관에서 SK협력사 구성원들이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SK협력사 The행복한보험' 전달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SK협력사 직원 대표들과 SK이노베이션 울산CLX 박경환 총괄, 이성훈 노동조합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The행복한보험은 SK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 SK이노베이션 25개 설비협력사 소속 2233명의 전 구성원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단체보험 패키지다. 협력사 구성원들에게 단체보험 패키지를 제공키로 한 것은 이번이 국내 처음이다.

SK이노베이션은 "울산CLX에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가장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국내 최고 수준의 SH E(안전·건강·환경) 시스템을 갖춘 이어 상해·질병 등에 대한 불안감까지 해소해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일상 생활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일어난 많은 변화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협력사 구성원들의 삶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단체보험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에 협력사 구성원들을 위해 가입한 더(The)행복한보험은 상해사망·후유장애, 중대질병 등 최대 1억원을 보장하는 상해보험 패키지로 구성됐으며,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갱신된다. 이 혜택은 기존 입사자뿐 아니라 연중 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험이 지원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정몽준 장남 정기선 현대중 부사장 결혼

현대가, 정재계 인사 한자리에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사진)의 결혼식에 범(凡)현대가와 재계 3세대가 대거 참석했다.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신부는 서울의 한 사립대를 갓 졸업한 교육자 집안 출신으로 알려졌다. 재계에 따르면 정 부사장은 신부와 약 2년 동안 만남을 이어간 후 백년 가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결혼식에는 현대가 사람들 중심으로 재계 인사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정 부사장의 아버지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결혼식 시작 2시간전인 오후 4시쯤 도착했다.

이후 정 이사장의 3째인 정선이씨와 장선의 동국제강 이사, 정몽일 현대엔파트너스 회장, 정일선 현대비엔지스틸 사장, 정기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이 결혼식장을 찾았다.

이 외에도 정대선 현대 비에스엔씨 사장과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 김동



관 한화큐셀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관계 인사들도 예식장 정문에서 모습이 포착됐다. 이흥구 전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홍정욱 전 국회의원이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정 부사장은 1982년생으로 대일외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육군 중위 전역 후 2007년 동아일보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현대중공업 재무팀 대리, 2011년~2013년 보스턴컨설팅그룹 컨설턴트를 거쳐 2013년 현대중공업그룹 기획실 기획팀 담당(수석부장)이 됐다. 이후 2018년부터는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이사 부사장, 현대중공업지주 경영지원실장(부사장), 현대중공업선박해양영업사업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극단 라하프 단원들



극단 라하프 연출 이한길

극단 라하프 단원 한소라

#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라 는 설 자리를 만듭니다

## 하나금융그룹 파워온임팩트

발달장애인들이 취업을 통해서  
혼자만의 힘으로 설 수 있도록  
자신만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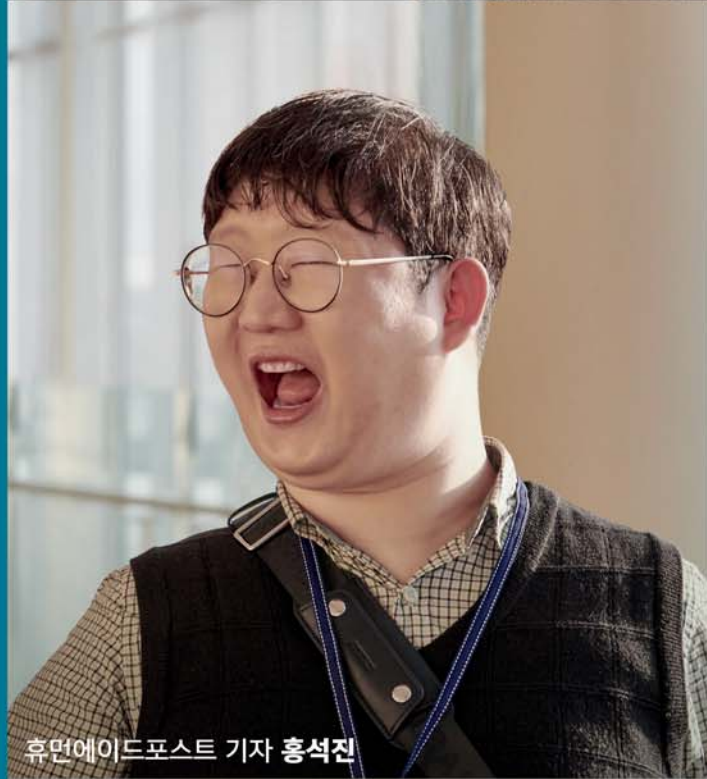
하나금융그룹은 일자리 만들기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발달장애인들의 강점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QR코드를 찍어  
[엄마의 졸업식]  
Full 영상을 감상해보세요



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홍석진



스프링샤인 도예가 이재영



스프링샤인 도예가 안윤주



소소한 소통 사원 이주형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SK서린빌딩 협력사 직원이 감동한 까닭은 “코로나에 최선” 회장님의 깜짝선물

최태원, 사회안전망 구축의지

서린빌딩 관리 직원 300여 명에  
마스크·홍삼 등 선물과 감사카드

최태원 SK회장이 서울 서린빌딩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도 코로나19에 따른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포스트코로나에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SK그룹 인프라넷에는 최회장이 서린빌딩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깜짝 선물’을 전달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위생관리와 보안, 출입 관리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 300여명에 마스크와 홍삼 등으로 구성된 선물과 감사카드를 선물했다는 내용이다.

감사카드에는 “직접 최선을 다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다시 마스크를 벗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이파이브할 날을 기다리겠다”는 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0 확대경영회의'에 참석해 발표를 경청하면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SK

시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은 게시된 지 하루만에 조회 수 3000건을 넘어서는 등 구성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댓글에는 ‘회사가 자랑스럽다’거나, ‘따뜻한 진심과 배려에 감동했다. 코로

나도 이겨낼 수 있다’는 등 응원이 이어졌다.

어린이집을 이용했다는 한 직원은 ‘어린이집 선생님과 조리사분들도 선물을 받으셨다고 들었다. 항상 죄송했는데 회장님이 대신 챙겨주시니 정말 감사하다’며 미담을 이어가기도 했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화상으로 수펙스 추구협의회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업이 사회와 고객, 구성원들을 위해 새로운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이같은 철학 일환으로 내부 구성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까지 감사의 뜻을 전달하며 사회 안전망 구축 의지를 실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 회장은 해외 현지 주재원과 가족, 스포츠팀과 연구개발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지난 5월 28일에는 직접 SK그룹 현행 릴레이에 참여하면서 사회 안전망 관련 활동을 이끌어왔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현대차 ‘더 뉴 싼타페’ 주행 모습.

## 강렬하게 돌아온 패밀리카 성능 더하고, 연비 높이고



### 현대차 ‘더 뉴 싼타페’

현대자동차가 2년 만에 부분변경을 통해 내놓은 ‘더 뉴 싼타페’는 ‘국민 패밀리 SUV’라는 수식어를 붙이기 충분한 매력을 갖추고 있다.

한층 강화된 주행성능과 넓은 공간성을 확보한 ‘더 뉴 싼타페’는 가족을 위한 차량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실제 더 뉴 싼타페의 광고는 가수 이승환의 노래 가사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면서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난 3일 만난 더 뉴 싼타페의 첫 인상은 ‘독수리의 눈’을 콘셉트로 헤드램프 일체형 넓은 라디에이터 그릴과 수직의 T자형 주간주행등을 독창적으로 대비시켜 강렬한 인상을 준다. 리어램프도 얇고 길어져 후면부는 안정감을 준다.

실내는 고급스러운 감성에 직관성을 더한 사용자 중심의 구조를 적용해 운전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센터콘솔은 넥쏘처럼 높고 비스듬하게 배치해 운전하면서 팔을 자연스럽게 내려서 조작할 수 있다.

스마트스트림 D2.2엔진을 새롭게 적용한 더 뉴 싼타페의 주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 한 카페까지 왕복 70km구간을 주행했다. 시승 모델

은 싼타페 최고급 트림인 ‘캘리그래피’ 7인승 모델이다.

시동을 켜도 디젤 특유의 소음과 진동은 느껴지지 않았다. 이는 주행 거리와 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첫 시승만으로 정속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물론 차량 정지 후 공회전 상태에서 외부에서 들으면 확실히 디젤엔진 특유의 소음이 느껴진다. 하지만 흡차음재와 이중접합유리 등을 충분히 적용해 내부로 들어오는 소음은 최대한 줄인 것으로 보인다.

주행시 변속 또는 급가속 할 때 응답성은 뛰어났다. 차세대 파워트레인 ‘스마트스트림 D2.2’ 엔진과 ‘스마트스트림 습식 8DCT(더블 클러치 변속기)’가 탑재돼 최고출력 202마력, 최대토크 45.0kgf·m의 성능을 낸다. 주위를 할 때도 순간 힘 있게 치고 나갔다.

더 뉴 싼타페에는 운전자 보조기능과 편의사양이 대거 추가됐다. 차로 유지 보조(LFA),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시스템,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PCA) 등을 적용했다. 연비도 우수했다. 연비는 급가속과 급제동이 이어지는 등 거칠게 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15.3km/L를 기록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3열 활용성이다. 쏘렌토는 2열에 독립시트를 적용해 3열까지 이동성을 높였다. 반면 싼타페 7인승 모델은 3열을 이용하기에 탑승자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 현대차, 국내 최초 상용차 케어 서비스

대형트럭 ‘엑시언트 프로’ 차주  
‘어드밴스드 케어 프로그램’ 도입

현대자동차는 상용차 고객 안전을 위해 업계 최초로 대형트럭 ‘엑시언트 프로’ 차주를 대상으로 ‘어드밴스드 케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어드밴스드 케어’ 프로그램은 현대차의 커넥티드카 서비스 ‘블루링크’를 통해 수집되는 DTC(고장코드) 정보를 활용해 고객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연락 및 정비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내 상용차 최초 능동형 케어 서비스다.

이번 ‘어드밴스드 케어’ 프로그램이 첫 적용될 ‘엑시언트 프로’ 고객에게는 차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고객센터에서 차량 고장 발생 현황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한 뒤, 우선 연락을 통해 해당 내용을 설명해 주고 필요할 경우 사전 출동 서비스도 지원한다.

현대차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고장코드나 경고등 점등으로 촉발되는 고객들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정비 예

약 또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함께 지원해 상용차 운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운행시간(UPTIME)을 증대시켜 준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엑시언트 프로에 선제적으로 적용한 ‘어드밴스드 케어’ 프로그램은 국내 상용차 최초 안전 알림 서비스”라며 “운행시간이 가장 중요한 상용차 고객들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LG디스플레이, 눈 편한 OLED TV 패널 인증

글로벌 인증기관 ‘플리커 프리’ 획득  
눈 건강 장점, OLED 대체화 가속

LG디스플레이 OLED 패널이 깜빡이지 않는 성능으로 눈에 편한 디스플레이임을 인증받았다.

LG디스플레이는 OLED TV 패널 최초로 독일 국제 인증기관 ‘TUV 라인란드’와 글로벌 안전과학회사 UL로부터 ‘플리커 프리’ 인증과 검증 마크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플리커 현상은 조명이나 화면이 매우 빠르게 깜빡이는 것을 뜻한다. 느낄 수 있는 가시 플리커와 느껴지지 않는 비가시 플리커가 있는데, 둘다 장시간 노출되면 눈에 피로나 시력 저하를 유발한다. 슬로모션 동영상이나 휴대용 선풍기 날개사이로 TV를 보면 직접 느낄 수 있다.

LG디스플레이 OLED TV 패널은 TUV 라인란드로부터 비가시 플리커도 0%로 측정됐다. UL에서도 플리커 현



LG디스플레이 TV사업부장 오창호 부사장(왼쪽)과 티뷰비 라인란드 카스텐 리네만 한국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상이 1.3%로, 기준치인 9.6%를 크게 밑도는 점수로 검증마크를 획득했다.

LG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이 스스로 빛을 내는 구조 특성상 플리커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LCD TV는 백라이트 LED 광원이 짧은 주기로 깜빡이며 빛을 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플리커 현상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LG디스플레이는 블루라이트

를 업계 최저수준으로 낮춰 TUV 라인란드에서 ‘낮은 블루라이트’ 인증을, UL에서 ‘블루라이트 최고 안전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LG디스플레이는 OLED TV 마케팅에서 ‘플리커 프리’와 ‘낮은 블루라이트’ 인증을 통해 대형 OLED 대체화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

## 휴대폰 보험금, 서류 없이 간편청구 가능

LG유플러스, 블록체인 기술 활용  
분실·파손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LG유플러스는 U+휴대폰 보험 앱에서 블록체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서 비스인 이니셜 앱과 연동해 휴대폰 분실·파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휴대폰 분실·파손보험을 이용하는 고객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다. 파손의 경우에는 단말 제조사의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수리를 받고 수리영수증과 견적서를 발급받은 뒤 파손 보상 신청서를 작성해 함께 보험사의 보상센터에 제출해야 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부터 LG전자 휴대폰을 이용자를 대상으로

U+휴대폰 보험 앱에서 블록체 기반 분실·파손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원장 기술로 제조사의 수리비 정보를 연동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수리영수증과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보상처리가 가능해졌다. LG전자 휴대폰 이용자 파손 보험 청구 건 가운데 80%는 서류 제출 없이 보상 처리돼왔다.

이번에 LG유플러스는 삼성전자 휴대폰을 이용자까지 서비스를 확대했다. U+휴대폰 보험 앱에서 ‘서류 자동 연동’ 버튼을 누르면 전자증명서 서비스 이니셜 앱이 연동돼 삼성전자 수리비 정보를 연동하는 식이다. 오후 4시까지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 당일에 보험금이 입금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



# 누를수록 뛰는 서울 집값... 강동 끌고 노도강 밀고

〈노원·도봉·강동〉

서울 아파트 매매가 0.12% 상승  
강동·노원 0.24%, 도봉 0.23% ↑

규제 피한 김포·과주 풍선효과  
정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거론  
김포시, 추가지정 검토 재고 건의



정부가 발표한 6.17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손진영기자 son@

국토교통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 달 17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일제히 상승했다. 정부의 추가 논의가 시작되자 6.17대책 이후 수도권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나타낸 경기도 김포시는 정부에 추가 규제지역 검토안을 제고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 ◆규제가 부른 매물부족...가격은 오름세

5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전주와 동일한 0.12%를 기록했다. 일반 아파트는 0.13% 상승해 비슷한 변동폭을 이어갔지만, 재건축은 0.06%로 지난 주(0.15%) 대비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서울은 ▲강동(0.24%) ▲노원(0.24%) ▲도봉(0.23%) ▲구로(0.21%) ▲강북(0.19%) ▲금천(0.19%) ▲송파(0.18%) ▲동대문(0.16%) ▲성북

(0.16%) 순으로 상승했다.

가장 많이 오른 강동구의 고덕래미안 힐스테이트(전용면적 84.88㎡)는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달 29일 14억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13억8000만원에 팔렸다. 래미안명일역솔베뉴가 2500만원 뛰었고, 둔촌푸르지오와 강동자이가 500만~2500만원 올랐다.

노·도·강의 선두주자인 노원구 상계주공1단지(전용면적 58.01㎡)는 지난달 28일 5억1000만원, 상계주공12단지(전용면적 49.94㎡)는 6월18일 4억5000만원에 팔렸다. 이 아파트들은 5월 각각 4

억9000만원, 4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1000만~6000만원 오른 셈이다.

그러나 가격 상승세와는 달리 매물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6.17대책 이후 각종 규제가 쏟아지자 주택보유자들이 거래에 응하지 않는 분위기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는 “정부 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르고 있다”라며 “수요는 늘어나는데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이 없으니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전했다.

규제 전 막차를 타려는 실 수요층이

6월말에 대거 거래에 나섰고, 7월 규제 시행 이후에는 집주인들이 대출조건 유지를 위해 보유주택을 매물로 쉽게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대출 제한에 관한 내용이 핵심인 6.17대책에서 단순히 규제를 한다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서울 집값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며 규제로 묵인 지역도 관망세를 보이다가 다시 가격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김포, 규제 검토에 건의문 전달

정부가 발표한 6.17대책에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인천, 경기 고양·수원·군포 등 수도권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포와 과주 등 접경지역은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에 제외됐지만 규제를 피한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김포는 집값이 급상승했다.

부동산대책에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안정되지 않자 정부는 풍선효과가 유입된 김포 일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3기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확대, 생

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세금 우대 등이 거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의 경우 현재 규제 가능성이 커지자 0.36%에서 0.14%로 상승폭이 줄었다.

이에 김포시는 국토교통부에 김포지역을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검토안을 재고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는 건의문에서 “김포한강신도시를 비롯한 김포지역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10년 전 분양가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며 “일부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김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포는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김포공항과 인접해 고도제한 등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곳”이라며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지금까지 규제만 받아온 시민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직전 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 맥 못추는 경기민감주... 성장주 쏠림현상

반도체·건설·자동차 등 하락장세  
코로나 재유행 우려에 언택트 부각  
바이오·2차전지·IT 등 실적 주목

반도체와 건설, 철강과 자동차 등 대형 경기민감주의 최근 흐름이 시원찮다. 업종별 순환매 속에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부각되며 경기민감주보다 비대면 업종 성과에 시선이 쏠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투자자를 필두로 한 유동성에 힘입어 상승한 후 나타났고 있는 숨고르기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작될 종목별 옥석가리기와 함께 경기민감주를 향한 투자자들의 시각이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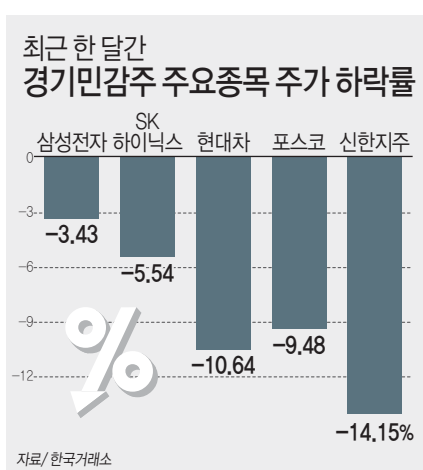
성장주로 넘어갔던 바통은 아직 넘어오지 않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로 대 표되는 일부 언택트(Untact·비대면) 종목들과 바이오, 2차전지 등이 성장주로 묶여 기세를 타는 모습이다. 반면 소비심리 회복 속에도 자동차, 은행, 건설 등은 지지부진하다.

### ◆반도체·자동차·철강주 반등 주목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반도체 대 장주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한 달 동안 각각 3.43%, 5.54%씩 하락했다. 이 기간 코스피 하락률(-1.35%)을 상회하는 수치다.

다른 경기민감 업종도 상황이 좋지 않다. 같은 기간 자동차 업종으로 분류되는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10.64%, 12.04% 내렸다. 현대모비스는 10.74% 하락했다. 철강 업종인 포스코(-9.48%)도 비슷한 모습이다. 금융주인 신한지주(-14.15%), KB금융(-8.55%)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경기민감주의 대부분은 지난 10일을



기점으로 내림세로 돌아섰다. 지난 4~5월 간 지수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으로 평가돼 수급이 반영됐다. 상승 동력을 잃고 힘이 빠진 모습이다.

경기민감주의 재상승 랠리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현재가 과연 저점이나”에 대한 시각차로 풀이된다. 결국 전방산업 재가동 여부가 관건이다.

자동차와 철강 업종은 상승 랠리 분석이 우세하다. 내수시장 회복에 이어 글로벌 판매도 늘어날 것이라 설명이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한국과 같이 전염병 확산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어 판매부진에서 강한 반등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선진국 판매 회복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다는 전제 하에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반도체주도 주도주 입지를 되찾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긍정적 시장전망과 예상보다 높은 가이던스로 반도체 안도 랠리가 기대된다”며 “2분기 실적 시즌에 진입하며 시장의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이 기대되는 국내 반도체주를 향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금융주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규제안을 내놓으며 투자심리가 악화된 상황에서 대출 증가율 역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저금리 부담을 안은 상황에서 시장수익률을 웃돌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이 많다.

### ◆“IT 소프트웨어 등 실적개선주 주목”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2분기 은행 실적은 양호할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예상손실 충당금 추가 적립 수준에 따라 실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제로 금리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주가에 부담이다”라고 했다.

반대로 성장주의 상향 추세에 초점을 맞추라는 시각도 있다. 코로나19로 증시 주도주로 떠오른 건강관리와 필수소비재,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전기차 등 소재 업체들이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끄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도 여기에 꼽힌다.

임지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치주는 여전히 막혀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달도 경기민감주의 반등은 힘들 것”이라고 했다.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대표 수혜 업종에 주목하라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시장 예상치를 가늠할 수 없는 만큼 2분기 실적 여부를 판단의 최우선 요소로 삼을 것을 권했다. 임 연구원은 “2분기가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했던 기간인 만큼 정확한 컨센서스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과 업종 위주로 접근하라”고 조언했다. /송태희기자 alvin@

## 대형주 반등에 국내 주식형펀드 1.35% ↑

### 주간펀드동향

코스피200 추종 인덱스 펀드 강세

대형주 중심으로 주가가 반등하면서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도 플러스를 기록했다.

5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주간(6월 26일~7월 2일) 국내 주식형펀드는 1.35% 상승했다.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전개되면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1.47%)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설정액은 1805억원 늘었다.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액티브펀드에서는 778억원이 자금이 빠져나갔지만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로 2583억원이 유입된 영향이다.

해외 주식형펀드는 한 주간 1.72%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중국(3.19%), 브라

질(1.49%) 등이 강세를 보였고, 섹터별로는 소재섹터(2.45%)가 크게 상승했다. 설정액은 836억원 줄었다. 중국펀드에서 계속해서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주에 이어 중국펀드에서 747억원이 감소하는 등 지역 펀드 투자는 줄어드는 가운데 에너지섹터(28억원), 소재섹터(9억원)로 자금 유입은 이어지고 있다.

해당 기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국내 주식형펀드는 ‘한화2.2배레버리지 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종류C-e’(4.03%)로 나타났다. 해외 주식형에서는 중국주식에 투자하는 ‘KB중국본토A주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A-E CLASS’가 8.93% 수익률로 수위를 기록했다.

한편 2일 기준 코스피지수는 전 주보다 1.09% 상승한 2135.37 포인트에 장을 마감했다. /손업지기자 sonumji301@

## LH, 2분기 행복주택 15곳 청약접수 개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2분기 입주자 모집 공고한 행복주택 전국 15곳 총 6191호에 대해 청약접수를 이달 6일부터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연

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 후속 조치에 따른 창업지원주택(동대구벤처)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부산명지)이 포함됐다.

청약 신청은 6일부터 15일까지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을 통해 가능하며, 10월 중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번 모집은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 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를 병행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약접수기간(10일)을 기존보다 늘려 방역수칙을 준수할 방침이다. /정연우 기자



# “검색엔진·챗봇 독심있게 전개… 검색기반이 경쟁력”

## AI 기업사

검색엔진·AI 챗봇 1위 기업 강용성 와이즈넷 대표

작년 277억 매출… AI기업 중 최고 은행, 공공분야 등 챗봇개발 수주 올 하반기 AI 보안관계 사업 도전

지난해부터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AI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로 관련 기업 중 수익은 물론 매출을 내는 곳조차 많지 않다.

이런 가운데 검색엔진 1위 기업인 와이즈넷은 발빠르게 AI 기업으로 전환해 지난해 277억원 매출에 41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해 AI 기업 중 최고의 수익을 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용성 와이즈넷 대표는 “AI 분야에서 매출 200억원을 넘는 기업이 없는데, 우리는 2016년 200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매출 300억원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난 20년 동안 수익을 낼 수 있는 내실 성장을 우선으로 해 왔다”고 밝혔다.

검색엔진 분야에서 누적고객 3400개사를 확보한 와이즈넷은 2000년 자체 개발한 검색엔진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AI 시장이 무르익기도 전인 2016년 AI 챗봇 시장에 진출했다.

그는 “처음에는 IBM의 왓슨 등 외산 제품에 비해 챗봇 인지도가 전혀 없어 ‘이 회사는 뭐지’라는 반응이 많았다”며 “그럼에도, ‘고객이 원하는 챗봇을 만들어 주자’고 생각했고, 당시 검색이 리스



와이즈넷이 새롭게 선보인 인공지능 챗봇 브랜드 ‘현명한 앤써니(WISE Answerly)’ 홈페이지.

트만 보여주던 방식이었는데, 카테고리별 검색이 가능한 ‘통합검색’을 내놓으며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챗봇을 공급한 회사만도 85개사로 독보적인 1위 기업으로 자리잡는데 성공했다.

이 같은 성장에는 검색솔루션업체인 라스21을 거쳐 2001년 와이즈넷에 입사한 강용성 대표의 공도 크다. 라스21에서는 지식관리시스템 등 솔루션 개발을 담당했지만, 대표의 권유로 와이즈넷에서는 영업을 맡았다. 그가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는 와이즈넷에서 2013년 대표이사에 발탁됐다.

와이즈넷은 신한 ‘솔메이트 오로라’ 챗봇에 이어 신한생명 챗봇 개발도 담당했으며, 대신증권은 물론 농협중앙회 챗봇도 최근 수주했다.

공공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는

데, 병무청 챗봇 ‘아라’를 오픈했으며, ETRI와 컨소시엄을 이뤄 경찰청 182 챗봇도 수주했다. 최근 대학에서 학사행정, 진로 상담 등을 위해 챗봇 도입이 크게 늘면서 중앙대 챗봇 1차 프로젝트를 끝냈고, 서울대 챗봇 개발에 착수했으며 건국대·아주대 챗봇도 개발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현상으로 챗봇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호재가 되고 있다. 강 대표는 “코로나19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생겨나고 새 구조로 변하는 계기가 됐다. 포스트코로나에도 언택트 이슈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은 챗봇 사업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색 기술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활용되면서 검색 기반의 챗봇이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년 동안 대형 쇼핑몰 등의 검색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는데, 쇼핑몰에서

검색이 멈추면 소송이 걸릴 정도 중요해 엄청난 트래픽을 처리하는 노하우를 쌓아왔다”며 “이 같은 기술력이 챗봇에 적용된 것이 저희의 경쟁력”이라고 소개했다.

다른 AI 대표 기업들이 AI 플랫폼 비즈니스를 대대적으로 내세우는 것과 달리 독심 있게 챗봇 위주의 사업을 전개하는 점도 관심을 모은다.

“플랫폼 기업으로 성공한 기업은 해외에서는 아마존·구글, 국내에서는 네이버·카카오 정도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투자받기 유리에 AI 플랫폼을 강조하지만, 플랫폼 비즈니스는 아직 공중에 붕 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현명한 앤써니’라는 챗봇 플랫폼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잘 하는 기술을 기존의 플랫폼에 올리는 방향을 더 선호합니다.”

와이즈넷은 또 텍스트 마이닝 분야에서 AI로 콜센터 음성데이터를 분석하는 사업을 진행해 경남은행·부산은행의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고객이 이탈하려고 하는 지 고객의도를 분석할 때 상담원마다 ‘단순 불만이 있는 거다’, ‘진짜 이탈하려고 한다’는 등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AI를 활용하면 사람에 따른 개인차를 줄이고 의도·상황 분석을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와이즈넷은 하반기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기술이전을 받아 AI 보안관계 사업에도 새롭게 뛰어 들 예정이다. “보안 관계 분야는 사람이 특정 행동

이 침입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24시간 일을 해야 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AI로 패턴에 따라 모델링하고 이런 패턴이 침입인지 아닌지 자동으로 파악해주는 제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와이즈넷은 또 구축형 챗봇에 주력해 오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비스형 챗봇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또 신한은행에 내부 업무용 챗봇을 공급하는 등 올해 챗봇에 로보프로세스자동화(RPA)를 연계해 내부 업무 혁신용 챗봇 판매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그는 “앞으로 와이즈넷을 ‘사람들이 정보를 평등하게 확보할 수 있는 권익을 줄 수 있는 회사’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 코로나에 날지 못하는 항공업계 ‘경영난 심각’

항공기 제조업체도 인력 감원 계획 지난해 수준 수요 회복 3년 예상 국내 항공업계도 파산 가능성 대두

글로벌 항공업계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이후 여전히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는 전 직원 13만5000명 가운데 1만5000명에 이르는 감원 계획을 검토 중이다. 항공사들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항공기를 제작해 납품하는 제조업체도 수요가 줄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유럽 최대 항공사인 에어프랑스도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계획 중이다. 에어프랑스는 2022년 말까지 전 임직원 4만1000명 중 7500명을 감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1분기 18억유로(약 2조4000억원)의 손실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 제조업체로서 에어버스와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 미국의 보잉도 상황이 여의치 않긴 마찬가지다. 이미 2018년부터 737맥스의 운항 정지 등으로 경영난을 겪어왔던 보잉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최근에는 북유럽 LCC인 노르웨이

안 항공도 737맥스 92대, 787 드림라이너 5대 등 보잉에 주문한 항공기 97대의 주문을 취소한 바 있다. 해당 기종 항공기의 추락사고, 엔진 문제 등으로 운항하지 못하게 되자, 보잉에 지불한 돈과 함께 손실을 보상받겠다는 말이다.

인력의 구조조정은 물론, 최근엔 항공사의 파산까지도 야기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멕시코 국적의 항공사 아에로멕시코는 결국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달 30일 파산 신청을 했다. 아에로멕시코는 파산법 절차에 따라 이미 구조조정을 시작했다는 입장이다. 또, 앞서 지난 5월에는 중남미 최대 항공사인 라탐 항공과 콜롬비아의 아비앙카항공이 파산 보호를 신청한 바 있다. 아비앙카항공은 콜롬비아의 최대 항공사이자 중남미 두 번째 규모의 항공사로, 1919년 설립된 이후 약 100년만에 코로나19 충격으로 파산을 맞게 됐다.

이 같은 파산의 가능성은 국내 항공업계에서도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제주항공과의 M&A를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은 최근 이마저도 틀어지면 회사가 공중분해 될 위기에 놓였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 오는 15일까지 최대 1000억원의 채무를 모두 해결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셋다운’에 들어간 이스타항공

이 해당 채무를 기한 내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아울러 나머지 국적사들도 파산까지는 아니더라도, 향후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설지 주목된다. 정부에서는 항공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은 항공사의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단 6개월간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급하는 제도로, 해당 기간 이후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10월 15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휴업을 실시 중이다.

한편 코로나19의 여파로 대폭 감소한 국제선 여객 수요는 근시일내 지난해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분기 국적사들의 국제선 여객 수요는 전년 대비 약 98% 줄어 들었다. 국토교통부 항공포털에 따르면 2분기 국제선 여객 수송량은 약 32만8200명으로 전년 동기(1518만4368명) 대비 약 97.8% 감소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요 회복 시점 관련) 전망은 어렵다”면서도 “지금 항공협회나 미국의 대형항공사들은 수요가 완전 회복되는 시점을 평균적으로 약 3년 가까이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이스타 1000억 채무 해결하라”

### 제주항공, 인수합병 사실상 계약 파기

이스타 “제주항공, 자력 회생기회 박탈”

제주항공이 인수합병(M&A)에서 최종 ‘발 빼기’를 시도하는 듯한 모습에, 이스타항공 노사가 한 목소리로 애경그룹을 비판하고 나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애경그룹 본사 앞에서 제주항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스타항공의 인수 절차를 밟고 있는 제주항공이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오는 15일까지 해결하라며 사실상 계약 파기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구조조정과 셋다운을 지시했는데, 결국 M&A를 포기하면서 이스타항공만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는 주장이다. 이에 제주항공의 모회사인 애경그룹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 나선 것.

이날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이석주 전 제주항공 대표이사와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가 지난 3월 20일

경 통화했던 녹취록도 일부 공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석주 전 대표이사는 최종구 대표이사에게 “셋다운을 하고 희망퇴직을 들어가야 한다. 그게 관(官)으로 가도 유리하다”며 셋다운과 구조조정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3월 전 노선의 운항을 잠정 중단한 이후 아직까지 재개하지 않고 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책임은 계약과 무관하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 놓고도, 3월 이후 발생한 부채를 이스타항공이 갚으라니 날강도나 다름없다. 억지를 부려 인수 매각을 파탄내고 있다”며 “이스타항공의 부채가 급증하게 된 것은 승객감소도 원인이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못 받고 이유 없는 전면 운항 중단이 이어지며 손실을 줄이지 못 했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의 이익을 위해 이스타항공이 자력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박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지 기자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애경그룹 본사 앞에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제주항공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 IT'S A GOOD LIFE!

식품&음료 | 패션&뷰티 | 생활용품  
 산업기자재&식품기기 | 기타

2020.8.7.(금)~8.9.(일)

SETEC

주최 **EXCOM**  
 후원 **sba**





# 기부는 **하트**를 타고... 유저와 함께 나누는 사회공헌

## 착한 게임이 온다

⑧ 선데이토즈

국민게임 '애니팡'으로 기부 유도 게임 재화인 하트 활용해 재미 UP 유기견 보호, 소외아동 등에 지원 사내선 다각적으로 기부활동 펼쳐 "기부의 가치 나눠 선순환 이루고파"

퍼즐 게임에서 하트를 주고 받듯 기부를 게임처럼 즐기면서 하는 곳이 있다. '애니팡' 시리즈로 유명한 캐주얼 게임사 선데이토즈다.

2009년 설립된 선데이토즈는 대중적인 캐주얼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한다. 최근에는 애니팡 시리즈의 후속작 '애니팡4'를 3년 9개월 만에 출시해 퍼즐 게임 장르 열풍을 다시 일으키기도 했다.

선데이토즈는 게임 이용자가 함께 즐기면서 '착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들이 게임 내 재화인 하트를 사용하거나 기부하면, 해당 숫자만큼의 금액을 선데이토즈가 기부하는 방식이다.

최근 진행된 유기동물 지원 이벤트가



(왼쪽부터)선데이토즈 김태열 사회공헌팀장과 심준희 사원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선데이토즈

대표적이다. 지난 3월 선데이토즈는 '스누피 틀린그립찾기'에서 총 9만명의 이용자가 이 이벤트에 참여했다. 선데이토즈는 유기견 보호소 신축 및 사료 지원, 유기묘 긴급 구조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시민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소외 아동 돕기에도 나선다. 지난 5월 '위베어 베어스 더퍼즐'에서는 성남시 소외 아동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지원했다. 같은 달 '애니팡 사천성'에서 진행한 이벤트 기부금을 사회적기업에 전달했고, 이달에는 '상하이 애니팡'에서 경계성지능 아동 예술치료 교육자원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직원들이 사내에서 자발적으로 '착한 지원'에 나서기도 한다. 명절에 거래처에서 받은 선물을 모아 사내에서 경매를 하고 모인 금액을 기부하는 '설 클린뱅크'가 대표적이다.

선데이토즈 사내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자판기'도 기부에 동참한다. 사랑의 자판기는 음료, 견과 등을 100원에 판매하고, 판매액은 전액 기부한다. 지난해에는 사랑의 자판기 수익금을 모아 취약계층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그릅홈 6개소에 660만원 상당의 생활가전 제품을 기증하기도 했다.

다음은 선데이토즈 사회공헌팀의 일문일답.



'위베어 베어스 더퍼즐' 기부 이벤트 이미지.

-게임 이용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 눈에 띈다. 처음 시작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

심준희 "이용자들에게 게임을 하면서 기부도 함께 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해보자는 생각으로 처음 시작했다. 애니팡 시리즈에서 하트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부도 게임하듯 쉽고 재미있게 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

김태열 "선데이토즈 임직원 중에 자원봉사를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20명 정도 계신다. 자원봉사 모집 인원이 제한돼 있는데 이 분들은 공지 5분만에 모두 신청을 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열의를 느꼈다. 보통 자원봉사는 주말에 나가는데도 말이다. 다른 임직원들도 자원봉사와 기부에 대한 관

심이 높다."

-함께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이용자의 반응은 어떤가.

심준희 "보상 유무와 상관없이 항상 목표치보다 훨씬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덕분에 게임 이용자와 함께 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주로 유기동물 지원이나 소외아동을 지원하는데, 지원대상 선정 이유가 있다.

심준희 "정부나 민간의 지원이 잘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사회공헌을 하고자 했다. 아동의 경우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는데 취약하고, 유기동물 역시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다. 또 회사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맞이한 분들이 꽤 많아서 유기동물 지원에도 관심이 높다."

-앞으로 회사에서 나아가고 싶은 사회공헌 방향성이나 궁극적 목표가 있다.

김태열 "게임을 하면서 게임 내 사회공헌 이벤트를 통해 기부의 재미를 느끼고 나아가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하면서 지속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사회공헌의 방향이다. 또 사내에서 하는 핸즈온 봉사활동 같은 행사들을 만들어 임직원분에게도 봉사와의 경험을 만들어 주고 싶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위기를 기회로... 기업행사 온라인화 가속

참석 한계 없고 제품 홍보에 탁월 행사 차별화, 기술 문제 보완해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던 행사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다. 대중을 모으기 힘든 상황에서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기업들은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자사의 서비스를 알리는데 한창이다. 다양한 연사를 초청해 온라인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SK㈜C&C는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과 플랫폼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을 위한 웨비나를 8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플랫폼 레볼루션'의 저자 마셜 벤 엘스타인과 캐나다 AI 솔루션사인 엘레먼트 AI사의 CEO인 장 프랑스와 가네 등이 출연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데이터에 관심을 갖게 된 초보자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디지털로 현실화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

시하고 디지털 플랫폼 경제 창출 방법을 소개한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오는 10일 AWS 데이터 분석 특집 웨비나를 연다. 무료로 진행되는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AWS 서비스의 관련 기능을 익히고 데이터 아키텍처를 설계 및 배포화하는 등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매년 개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 컨퍼런스 'SEF 2020'을 지난 2일 온라인으로 개최해 4차 산업혁명 속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 방향성에 대해 제언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SEF2020은 사전 신청자 수 1만명을 기록하며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인기를 실감케 했다.

온라인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뤄지고 있다. 애플은 지난달 '세계 개발자 회의(WWDC) 2020'을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아이폰, 아이패드 등에 탑재될 새로운 운영체제(OS) 'iOS 14'를 공개했다.

그뿐만 아니라 애플은 애플은 5일 동안 100개 이상의 기술 및 디자인 관련 세션을 열어 개발자들이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구축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 행사는 누구나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참석할 수 있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크고 작은 온라인 행사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참가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고 현장의 열기를 느낄 수 없다는 부분은 온라인 행사의 한계점이다. 또한 시청자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술적인 문제로 연결이 끊기면 상황 파악을 할 수 없어 기다릴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 한정적인 인원으로 진행해 참석할 수 없었던 소비자도 행사에도 참석할 수 있어 제품을 알리기에 좋다"면서도 "온라인 행사가 많아지다 보니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차별점을 강조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적자 늘 빠진 CGV "방역 관리 최선"

2분기 적자 폭 1분기보다 확대 전망 신작 러시로 하반기 실적 반등 기대 띄어왔기, 전자명부시스템 등 시행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1분기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한 CJ CGV(이하 CGV)가 띄어왔기, 전자출입명부시스템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며 안전한 영화관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지만, 벌어진 적자 폭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CGV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2433억원, 영업손실 716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를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도 관객이 급감함에 따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6% 감소했다. 투자 보류, 인력운영 효율화 등 비용 절감을 위한 고강도 자구안을 실행했지만,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 지출이 많아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영화 개봉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관객은 전년 동기 대비 52.8%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7.6% 감소한 1278억원, 영업손실은 330억원을 기록했다.

해외 상황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2월부터, 터키는 4월부터 극장을 폐쇄하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극장을 운영 중이지만, 전년 동기대비 관객수는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상보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2분기 적자 폭은 1분기보다 커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올 1분기 중국에서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5.6% 급감한 158억원, 영업손실은 354억원이다.

지난 6월부터 극장가에는 '침입자' '결백' '#살아있다' 등 국내 신작들이

개봉했다. 휴일 관객수는 19년 평균 100만명에서 4월 5만명으로 급감했으나, 6월 마지막 주에는 41만명으로 40%까지 회복세를 보였다. 이는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극장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는 15일에는 배우 강동원 주연의 영화 '반도'가 개봉한다. 이어 '강철비 2' (29일), '태넷' (8월 12일)이 개봉을 확정지었다. 이밖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물란' '007 노 타임 투 다이' 등 국내외 작품들이 가을부터 연달아 개봉을 앞두고 있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CGV는 영화관 자율 지침으로 '띄어앉기'를 실천 중이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 확산 및 온라인 예매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CGV 모바일 앱을 개편했다. 리뉴얼된 CGV 모바일 앱에서는 각 고객의 상황에 따라 관람하기에 더 편한 시간대나 극장을 빠르고 쉽게 선별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는 전자명부시스템을 도입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경우 역학 조사의 편의성을 위해 전자명부시스템 확산을 추진해왔다. 영화관이 이를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CGV는 정부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고 더욱 안전한 영화 관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을 결정했다.

영화관에 직접 방문해 발권하는 고객이 대상이며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하면 본인 인증 화면이 나온다.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 인증을 절차가 끝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시몬스 "싱글침대 구매하면 할인 혜택"

시몬스는 싱글 침대 구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수퍼싱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전국 시몬스 공식 매장에서 싱글(SE) 또는 수퍼싱글(SS) 사이즈 매트리스 구매 시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특정 프리미엄 매트리스에 한해 5~10%

추가 할인 혜택을 적용해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6개월 장기 카드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인 '시몬스페이'를 이용해 수퍼싱글 사이즈 매트리스를 구입하면 100만원대 침대는 36개월 할부 시 월 2만7000원 내면 시몬스 침대를 구입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5조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공수처·인사청문회 등 與野, 현안 공방 예고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 시작**  
민주당 “일하는국회 실현에 최선”  
통합당 “국민과 국익위해 싸울 것”

7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처리한 직후 7월 국회 조립에 나서면서다. 7월 국회에서 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이 일하는 국회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7월 국회 중 열릴 인사청문회 준비도 할 예정이다. 최근 논란이 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 중 하나로 꼽힌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현안 브리핑에서 3차 추경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7월 국회에서도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일하는 국회법’과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에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좌고우면(左顧右盼)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7월 국회에서는 통합당도 우리 국민과 민생을 위해 다양한 입법과 건전한 대안 제시로 제1야당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 개원에 앞서 5일 원내 복귀를 선언했다. 각종 현안을 처리하는 상임위에서 대어 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앞서 통합당은 민주당이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사실상 단독으로 진행한 데 반발해 상임위 보이콧에 나선 바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당은 7월 국회에서 경제 위기와 안보 파탄, 부동산·가계 폭동,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급등, 인공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국민 삶을 짓누르는 민생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국민과 국익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통합당은 ▲공수처 관련 현안 ▲부동산 정책 대안 마련 ▲정부 대북 정책 및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관련 윤미향 민주당 의원 국정조사 추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수사 및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 의혹 진상 규명 ▲김·연 유착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특별검사) 도입 등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할 현안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7월 국회 의사 일정 참여를 위해 이르면 6일 국회에 상임위 배정표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7월 국회 의사 일정 협의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도 “(민주당에서) 제안이 오면 의사 일정에 관해서는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7월 국회에서 예정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인영 통일부 장관·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산업부, 오늘부터 여름철 ‘절전 캠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6일일부터 9월 18일까지 전력수급대책기간 중 여름철 절전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예년과 달리 온라인 등 비대면 위주로 진행된다. 에너지절약 실천에 더해 생활 속 방역 중심의 ‘슬기로운 냉방요령’을 주제로 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시리즈로 제작해 유튜브, SNS 등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 캠페인 슬로건은 ‘쫄(Safe, Save, Smart)한 에너지생활, 생활 방역 속 슬기로운 냉방요령’으로 ▲에어컨 사용 시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에어컨 사용 전 필터 청소 ▲문 닫고 에어컨 사용하기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 26℃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용수 기자

# 중기부 ‘존경받는 기업인’ 12명 추가선정

올 첫 국민추천제 경쟁률 14.7대1  
서류·현장평가·발표평가 등 거쳐

케이팩 강석원 대표, 터보원 김민수 대표, 비나텍 성도경 대표 등 12명이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뽑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처음 도입한 국민추천제 등을 통해 존경받는 기업인 신청 접수를 받는 결과 176명이 신청, 14.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1차(서류평가), 2차(현장평가), 3차(발표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12명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선정을 시작한 존경받는 기업인은 이들을 포함해 총 48명으로 늘어났다.

〈존경받는 기업인 최종 선정 명단〉  
(대표자 성명 가나다 순)

이름	기업
① 강석원	(주)케이팩 대표
② 고봉익	(주)티엠디교육그룹 대표
③ 김민수	터보원(주) 대표
④ 김유신	(주)티디엘 대표
⑤ 박찬암	(주)스틸리언 대표
⑥ 성도경	비나텍(주) 대표
⑦ 유호목	에스제이이(주) 대표
⑧ 이정근	(주)그린텍 대표
⑨ 장상용	(주)엔코아네트웍스 대표
⑩ 장승은	(주)오버맨 대표
⑪ 차성진	호스텐스터(주) 대표
⑫ 형재성	(주)씨티케이 대표

형재성 씨티케이 대표는 지난해 거둔 30억원의 영업이익 가운데 25%인 7

억5000만원을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으로 나눠줬다. 게다가 근로자 1명당 최대 4900만원까지 자녀학자금도 지원하는 등 사람 중심의 기업경영을 실천해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모범 중소기업의 롤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고봉익 티엠디교육그룹 대표는 특별 목표 달성 시 1개월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 근로자와 적극적으로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교육서비스 장점과 역량을 발휘해 국내 새터민 청소년과 중국 조선족, 몽골, 아프리카 등에서 교육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사내 바자회 등의 모금을 통해 국내 미혼모 단체 지원, 레바논·시리아 난민학교 설립 지원 등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단위 방역대책’ 추진

중수분, 매일 소독차량 1000대 투입  
오염지역 소독, 농장 차단방역 나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여름철 사육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에 빈틈이 없도록 7~8월 농장단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야생멧돼지 양성개체는 감소 추세지만, 봄철 출산기에 태어난 개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장마철 많은 비로 접경지역 하천을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특히 6월 중순부터 무리 생활로 인한 멧돼지간 전파와 주변 환경의 바이러스 오염으로 어린 멧돼지(연천, 1개월령, 7마리)에서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수본은 매일 소독차량 약 1000대를 동원해 오염지역 일대를 집중 소독하고 8월까지 농장 차단방역을 공고히 하는 한편, 위험요인에 대한 선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개체가 발생한 경기도 포천시 신흥리 일대를 방문, 관계자로부터 방역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환경부

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또 농장주와 농장 관리자가 스스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모바일 자가점검 앱을 7월 중 경기·강원 북부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

은 “양돈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노력들이 모여야 사육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 ‘바이러스의 최후 보루는 개별 농장’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방역시설 보완과 방역수칙 준수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 기자 hys@

## 농진청, 공공일자리 840명 신규채용

비대면·디지털 4개분야 대상  
실업난 해소 일환 3차추경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3차 추경 예산으로 추진하는 비대면·디지털 공공 일자리 4개 분야 84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5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난 해소를 위해 농촌진흥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구축 사업 1개와 비대면 서비스 사업 3개를 기획하고 3차 추경 사업으로 추진한다.

채용 분야 및 인원은 ▲비대면 농산물소독조사 지원체계 구축 90명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사업 200명 ▲농업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500명 ▲온라인 원예특용작물 농업기술 서비스 지원 사업 50명이다.

신규 채용 인력은 기간제 근로자 자격으로 올해 12월까지 농촌진흥청, 도

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채용일정은 사업별, 지자체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서류접수는 7월 6일~7월 15일, 면접은 7월 8일~7월 17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7월 16일~8월 1일 사이에 업무를 시작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www.rda.go.kr)을 비롯해 도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일자리 사업이 3차 추경 예산에 반영됨으로써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발굴과 창출 효과를 거두게 됐다”며 “농촌진흥청이 농업기술 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농업을 선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 바른단위 사용 공모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길이(m), 질량(kg) 등 올바른 법정 단위 사용을 일상생활에 정착시키기 위해 ‘2020년 바른단위 사용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공모전은 7월 6일~9월 13일까지 진행되며, 국내 초·중·고·대학생과 일반인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평’, ‘돈’, ‘인치’ 등 비법정 단위 대신 ‘미터’, ‘킬로그램’ 등의 법정 단위 사용을 권장하고 국제 기본 단위를 소개하는 포스터(초등학생 대상) 또는 동영상(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을 제작해, 국가기술표준원 법정 단위 홍보 블로그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 2점(포스터, UCC 각 1점)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최우수상과 우수상 22점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상을 시상하고, 부상으로 총 635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한용수 기자



#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에 1000억 교육부, 추경 총 5053억 확보

3차 추경서 교육위 증액 요구  
2718억 대비 1718억원 줄어  
지원 방식 확정 후 본격 논의



교육부.

등록금을 반환해주는 대학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 1000억원을 교육부가 확보했다. 교육부가 3차 추경에서 확보한 전체 규모는 5053억여 원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는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가 확보한 예산은 온라인 교육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사용할 예산을 포함해 총 5053억원이다.

대학가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당초 국회 교육위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 긴급 지원을 위해 신청했으나 예산 당국 반대로 감액됐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767억원을 증액하고 일부 사

업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총 271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하지만 예산소위 과정에서 1718억원을 삭감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760억원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240억원 등 10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을 30%에서 40%로 확대해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4년제 대학에 760억원, 전문대에 240억원이 지원된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 재정여건과 대학이 특별장학금 지원을 포함해 실질적 자구 노력을 보이는지 등을 고려해 온라인 수업,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

험·실습 기자재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 확정되면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학 노후 전산망 교체와 클라우드 전환 등에는 480억원을 투입한다. 노후 전산망 교체와 클라우드 전환에 352억원을 투자해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예산 128억원을 활용해 대학이 원격교육 콘텐츠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도 세운다.

이 밖에 교원 원격교육 역량강화 지원에 33억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콘텐츠 개발 등 에듀테크 플랫폼 구축에도 39억원이 투입된다.

대학 부설 연구소의 연구 보조인력 및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온라인 원격 도우미 등을 통해 공공 일자리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대학생을 위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세종대 LINC+사업단,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동참

세종대 LINC+사업단은 지난 1일 코로나19 감염 치료와 확산 예방을 위해 의료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전국 의료진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5일 밝혔다.

한서대 LINC+사업단으로부터 지목을 받은 세종대 LINC+사업단은 캠페인에 참여해 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현진 기자



세종대 LINC+사업단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모습.

/세종대

## 명지대 '전공체험 꿈을 담다' 성료

명지대는 지난 3일 2020학년도 MJ전공체험 '꿈을 담다' 1차 행사를 학내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MJ전공체험 '꿈을 담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소규모 학과 전공체험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학교등학과 52명 학생이 명지대 청소년 지도학과와 아동학과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학과안내 ▲학과특강 ▲학과전공체험 ▲선배와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이현진 기자

## 인하대 청소년 우리말지킴이 활동

인하대가 인천 지역 고교생들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청소년 우리말 지킴이' 활동을 11월까지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인하대 국어문화원이 운영하는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직접 우리말 지킴이로 나서 또래들에게 올바른 우리말 문화를 전하는 과정이다. /이현진 기자

## 건국대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선정

건국대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이공계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항공우주 설계·인증 연구소(소장 이재우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 사업을 통해 항공우주 설계·인증 연구소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총 3단계 9년 동안 연간 7억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의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대학연구소의 특성화와 전문화를 유도하며 우수 신진 연구 인

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이번 대학중점연구소 과제에는 이재우 연구소장, 김창주 항공우주시스템공학과 교수, 김상호 스마트운행체공학과 교수, 민덕기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 4명과 박사급 전임연구 교수 및 연구원 8명, 연구원 20명이 참여해 향후 9년간 '스마트 도심 항공 교통(UAM)을 위한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기술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현진 기자

## 교육연구정보원, 오늘부터 이틀간 '국제 웨비나'

서울시교육청소속 교육연구정보원이 6일과 7일 '포스트 코로나19: 사회와 교육의 변화, 방향, 가능성'을 주제로 국제 웨비나를 개최한다. 6일 14시부터 교육연구정보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 발제가 방송된다. 웨비나 영상 발제에는 학교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회학, 에듀테크, 생태교육 등 다양

한 전문가의 발제가 예정돼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가 가져오는 사회와 교육의 변화 모습을 함께 성찰해보고, 앞으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날 발제에는 (전)보스턴 컬리지 Andy Hargreaves의 교육 변화와 학교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현진 기자

## 몸통 뺀 '곤농'스런 사고설명문



문형철 기자

국방 칼럼

설명문에 빠진 이유를 묻자 육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이 중점이 아니라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의 조사대상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일명 '곤농(덩치만 큰 바보 육군)'이라 불리는 육군은 지난 3일 '몸통은 없고 팔다리'만 있는 설명문을 내놓았다. 그것도 지역발로 말이다.

육군이 이날 공개한 설명문은 지난 4월 23일 전남 담양군 소재 민간 골프장 직원이 인근 육군 사격장에서 날아온 소총 탄두로 인해 머리에 부상을 입은 경위를 담고 있다. 실제로 관련된 안전사고였던 만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고였는데, 육군은 지역언론에 배포했다가 뒤에 슬며시 전국 언론에 공개했다.

우리 민족을 쉽게 풀고 쉽게 식는 민족이라고 하지만, 시민들을 바보라고 생각한듯 하다. 설명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 사건의 중요한 본질이 빠져있다. 대다수 언론들이 놓친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여부가 그것이다.

사건 발생 당시 육군은 사고발생 골프장이 사격장에서 1.7km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군사시설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해당지역의 위성사진을 들여다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보호시설은 민간시설과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를 이격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군 사격장은 외곽 경계선이 아닌 방벽에서 골프장까지의 최단거리가 660m 정도에 그친다. 사실상 골프장이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는 곳에 설립된 것이다.

이번 사고 설명문과 관련해 조사를 한 곳은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이 다.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여부가

이번 설명문을 보면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은 '산수'를 뜻하는 기관인 가라는 생각이 든다. 설명문에 따르면 골프장 인근 약 1.4km 떨어진 군부대사격장에서 사격 간 발생한 유탄(조준에서 빗난 탄)이 골프장 직원의 부상원인이다.

국군의 제식소총탄인 K-100과 KM193의 유효살상거리는 각각 600m와 460m다. 유효살상거리를 넘어가면 살상력은 줄어든다. K100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4km 정도 떨어진 거리를 탄이 날아가기 위해선 탄도상 '최고 비행높이(M AX ORD)'가 40m 정도선에 머문다. 그런데 해당 사격장의 방벽 뒤에는 최소 해발고도 100m 이상의 능선이 자리잡고 있다.

총탄의 위력이 500그램 정도의 물체를 13미터 정도 이동시키는 60J(줄) 정도에 그친다. 수사를 수(手)로 한게 아니라 발로 한건지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담양 군 등 지역 여론은 사격장이 지역개발의 방해라는 이유로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군 스스로가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는 이유가 2008년 개장을 한 골프장과 관련된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들게 된다. 이런 상황에 군이 내놓은 해결은 차단벽이다.

자연의 차단벽이 있는데 추가로 차단벽을 쌓겠다는 육군의 발상. 바벨탑을 쌓고 싶은 걸까 아니면 돈이 나올 탑을 쌓고 싶은 걸까. 특허법과 국가계약법도 무시하며 특정업체를 밀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곤농의 속을 누가 알겠나. /captinm

## "서울시교육청 코로나 대응 만족도 높아"

학교지원 5점 만점에 4.18점 받아

서울시교육청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지원대책과 관련해 일선 학교 대상 설문 조사에서 5점 중 평균 4.18점을 받으며 호평을 얻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국공립 유·초·중·고 및 특수·각종 학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 245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학교지원사업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18점을 얻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중 평균 4.18점으로 학교지원대책의 현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대응 학교지원사업 중 4개의 주요 분야에 대하여 실시됐으며, 분야별 만족도는 ▲자율성 확대(4.41점) ▲업무경감(4.31점) ▲방역 지원(4.18점) ▲원격수업 지원(3.94점) 순이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청 행정 전체를 과감

히 재구조화하고 지난 상반기 자율성 확대, 업무경감, 방역, 원격수업 등 학교현장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자율성 확대 방안(목적사업 보류·축소·중단 등 정비, 봉사활동시간 학교장 자율 결정 등) 등이 주축을 이뤘다.

학교자율성 확대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수립과 평가 등 축소 운영, 목적사업 취소와 연기, 1인 수의계약 한도액 확대 순으로 효과가 높게 인식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경감 분야에서는 목적사업비 방역예산 전용 또는 미집행, 보고·조사·업무메일 통한 사업 진행 지양, 공문서 사전심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조사됐다.

원격수업 지원은 온라인 수업 기자재·통신비 지원, 온라인 수업용 콘텐츠 제작 보급, 원격수업 지원 배움터 구축 순서로 효과가 높다고 인식됐다.

분야별 개선사항과 관련해서는 방역 지원에서 교육청 주관 방역물품 구매·공급, 신속한 예산지원, 방역지침 구체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현진 기자



주름개선기능성화장품 www.pdna.co.kr

# 연어의 힘으로 빛나다

## P+DNA 세럼 & 크림

3배 강화된 연어DNA로  
광채피부를 경험하세요

\* 기존 자사제품 대비



연어케어의  
원료성분  
sodium DNA

### 기대해보세요, 14일 후의 피부 동안피부를 위한 DNA 3000ppm 함유

- 기존 자사제품 대비 sodium DNA 함유량이 3배 더 강화되었습니다.
- 단백질 펩타이드, 프랑스 보르필린 등 차세대 프리미엄 원료를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 세라마이드 복합체, 발효추출물이 촉촉하게 빛나는 피부, 힘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 「50%」특별할인

P+DNA 런칭 2주년 기념  
고객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리지널 제품을  
파격가에 드립니다

[\*sodium DNA 1000ppm]



#### 어린 피부를 위한 DNA 과학

- 정정 연어 DNA**  
물광피부  
항노화 효과
- 탄력보습**  
펩타이드 1-7-8  
단백질 복합체
- 주름개선**  
아데노신  
주름개선기능성
- 스킨퍼밍**  
프랑스 세더마사  
보르필린
- 피부장벽 강화**  
세라마이드 복합체  
건강한 피부지질회복

#### 5가지 항산화 항노화 추출물

- 발효콩**  
항산화 영양소  
이소플라본 함유
- 발효 겨우살이**  
매고롭고 빛나는  
피부결
- 발효 띠뿌리**  
식물성 에스트로겐  
진정효과
- 병풀 추출물**  
피부 진정  
피부영양강화
- 눈연꽃 추출물**  
피부 보호 및 영양  
피부 탄력

# P+DNA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인텐시브 DNA 세럼&크림

구입문의  
고객상담센터

# 070-4870-0708



### 중소사랑나눔재단 소상공인 무료 여름휴가 지원

오늘부터 선착순 신청자 모집  
중소인력개발원서 2박3일간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월 0시부터 선착순으로 무료 여름휴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소상공인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리프레쉬 충전 시간을 제공하고, 길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침체된 국내여행을 활성화하는 분위기로 만

들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용은 무료이며 2박3일 동안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숙식 제공 및 작은음악회,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름휴가 지원은 총 4회차에 걸쳐 운영되며, 온라인 접수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자가 원하는 회차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1차는 8월8~10일, 2차는 8월10~12일, 3차는 8월12~14일, 4차는 8월14~16일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LG전자, 홈브루 수제맥주 시음행사 확대

베스트샵 직영점 맥주제조 한시 허용

LG전자가 LG홈브루(사진) 맥주를 직접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LG전자는 이달 중순 이후 주말마다 LG베스트샵 강남 본점과 부산 본점 등 행사매장에서 LG홈브루 맥주 시음 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국세청이 LG베스트샵 직영점에서 시음용 맥주를 제조할 수 있게 한시

적으로 허용해준 덕분이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서울 가산동 하이프라자 본사뿐 아니라, 지난 2월 수도권 LG베스트샵과 백화점에 이어 전국 LG베스트샵 100곳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김재용 기자 juk@



### 귀뚜라미 'KBRI 가정용보일러' 4년째 1위

귀뚜라미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발표한 '2020 한국산업의 브랜드추천(KBRI)' 조사에서 가정용보일러 부문 4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한국산업의 브랜드 추천은 소비자의 추천 수준을 토대로 브랜드를 평가하는 제도다.

귀뚜라미는 에너지소비효율과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탁월한 친환경보일러의 개발과 대중화에 앞장서며 소비자



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고 있다. /김승호 기자

### 2020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업무협약식



파리크라상, 에너지공단과 동반성장 업무협약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이 한국에너지공단과 대·중소기업 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상생 협력을 위해 '2020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 증대 관련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가기 위해 기획됐다. 윤인상 파리크라상 상무(첫 줄 왼쪽 첫번째)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PC그룹



교촌치킨, 대학생 마케터 1기 트레이드리더스 해단식 진행

국내 치킨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가 교촌치킨 대학생 마케터 1기 트레이드리더스 신메뉴 아이디어 및 마케팅 방안 제안 보고대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일 교촌 오산 본사에서 진행된 교촌 트레이드리더스 해단식에서는 트레이드리더스 1기 활동 소개 및 팀 별 신메뉴 제안 PT를 진행하고 우수 활동팀에게 특별 포상을 수여했다. /교촌에프앤비

## 명의개서와 주주권의 귀속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상법 제337조 제1항은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주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상법은 주식의 발행 시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 주소, 각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 결정, 신주인수권, 무상신주의 배정, 중간배당을 받을 권리자 결정 등의 기준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자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판례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

을 납입한 경우에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까지 마쳐도 실질상의 주주인 명의 차용인만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법원 지난 2017년 3월 23일 선고한 2015다248344 전원합의체 판결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돼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의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했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즉, 통상적인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명의개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를 대여해준 자가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주주명부제도를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형식적, 획일적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사무처리의 효율성,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본다. 그리고 이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해, 후자에 대해서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본다.

최근 대법원은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지는 경우 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명의개서를 마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실질상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위 주주에게 주주권이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 매일유업, 친환경 장바구니 독려 캠페인

친환경 신소재 타이백 장바구니 제작  
기획전 증정품 준비, 단독구매도 가능

매일유업이 '세계 일화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아 친환경 장바구니 사용 독려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매일유업은 최근 친환경 신소재 타이백으로 친환경 장바구니 'BAG to the FUTURE'를 특별 제작했다. 타이백은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고, 땅에 묻어도 유해물질을 방출하지 않는 무독성 친환경 신소재다.

친환경 장바구니 BAG to the FUTURE는 매일유업 네이버 직영스토어의 '친환경 기획전'에서 만나볼 수 있



매일유업이 제작한 친환경 장바구니 BAG to the FUTURE

다. 해당기획전에서 행사 제품을 두 박스 이상 구매하면 증정품으로 친환경 장바구니를 받을 수 있고, 장바구니만 단독으로 구매할 수도 있다. 본 기획전은 준비된 친환경 장바구니 물량이 소

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매일유업은 사내 임·직원에게도 친환경 장바구니를 나눠주고, 참여를 독려했다. 매일 구매해 사용해야 하는 식품의 제조와 판매를 업으로 삼고 있는 만큼, 임직원이 앞장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자는 취지이다.

매일유업은 사회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난해 RTD 컵커피인 바리스타를스 제품 패키지에서 알루미늄 라벨을 제거, 분리수거가 용이한 소재로 변경했다. 상하목장 우유와 플로리다 주스 등 PET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은 패키지 경량화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하고 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 인사

◆ 우리은행 ◇ 임원(상무) △개인그룹 겸 디지털금융그룹 박완식 △DT추진단 황원철 △투자상품전략단 심상형 ◇ 본부장 △자산관리그룹 신준배 ◇ 소속장급 승진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기락중앙 구옥분 △가산IT 이준찬 △도산대로 이승민 △무역센터 채수길 △문정중앙 허진 △법조타운 구은아 △서여의도 노경래 △서초서브문 △선릉 김상필 △송파 김종학 △신사동 이준영 △양재남 조일형 △테헤란로 진용두 △남동공단 신상원 △부평 장승욱 △분당중앙 김태섭 △오창 양희성 △부전동 황상수 △울산중앙 신환철 △창원공단 권아섬 △성서 정승윤 △광주 한정수 ◇ 지점장 △구로구청 김동현 △글로벌투자지원센터 김건우 △길동 명신욱 △까치산역 이희정 △목동중앙 김정훈 △은평뉴타운 임창용 △혜화동 최영선 △덕소 정재훈 △수지동천 이상성 △화성정남 이준석 △대전무역회관 박은서 △산신 김태영 △대천 김종섭 △강릉 채수명 △부안동 배한철 ◇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본점2 한백수 △중앙 정규석 △중로 권오희 △남대문 임소연 △미래 김효순 ◇ 증권기업전략영업본부 기업지점장 △합치서 △김태진 ◇ 본부부서 부장 △개인고객부 김광연 △고객센터 김기환 △디지털사업부 이창재 △투자금융부 김홍익 △자금부 예희승 △직원만족센터 정장훈 △여성정책부 공중남 △대기업심사부 이상현 △여성관리부 정영호 △리스크총괄부 박연호 △비서실 홍성훈 △준법감시

실 이동민 ◇ 지점장 대우 △두바이 조병조 ◇ 해외파견 △베트남우리은행 박종희 ◇ 소속장급 이동 금융센터장 △가든파라드 양진모 △강남대로 변의갑 △문정중앙 정승수 △수서역 이원재 △동백 조주현 △롯데월드타워 허기철 ◇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남역삼동 이영민 ◇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강남 전준성 ◇ 지점장 △가산디지털중앙 이무진 △노량진 김성훈 △서초역 박광옥 △홍제동 김용정 △TC프리미엄강남센터 박승안 △권선 전수일 △김포구래 박창욱 △매탄동 반석용 △수지 최효열 △천안 청수 조순주 △시디니 홍익석 △다가 김동현 △두바이 황규호 ◇ 영업본부 지점장 △대구경북 서부 이상석 ◇ 지점장 대우 △TC프리미엄강남센터 박일건 ◇ 본부부서 부장 △개인고객부 박봉순 △영업추진센터 김동성 △빅데이터사업부 이송희 △SI사업부 전유승 △디지털사업부 한재철 △스마트고객부 윤희준 △자산관리사업부 김영봉 △연금사업부 강용재 △투자상품전략부 최영민 △주태기금부 최준현 △기업고객부 송윤홍 △중소기업지원부 정창화 △외환사업부 차재현 △증권운용부 최준연 △글로벌 B31사부 이태훈 △준법감시실 한창식 △법무실 장한 ◇ 본부부서 부장 △DT추진단 고원명 △디지털사업부 김중우 △신용리스크관리부 김성준 △검사실 김동환 △검사실 심근섭 ◇ 해외파견 △수리파이낸스미얀마 김진희 △홍콩 우리투자은행 이수진

◆ 중앙일보 ◇ 보임 △뉴스룸 및 편집국 정책 디렉터 겸 복지행정팀장 겸 복지전문기자 신성

식 △ 국제외교안보디렉터 차세현 △ 사회디렉터 겸 시민사회환경연구소장 김원배 △ 사회부디렉터 겸 EYE1팀장 염태정 △ EYE2팀장 홍주희 △ 경제EYE팀장 문병주 △ 사회2팀장 장정훈 △ 내셔널팀장 김형구 △ 내셔널 부팀장 최경호 △ 산업2팀장 겸 과학전문기자 최준호 △ 경제정책팀 부동산선임기자 안정원 △ 문화팀장 이지영 △ 문화팀 문화선임기자 이은주 △ 콘텐츠제작에디터 서승숙 △ 뉴스제작국 ECHO팀장 강정진

### 부음

▲ 국조례씨 별세, 안향미·안희돈(강원대 교수)·안희정(전 충남도지사)·안향숙·안향선씨 모친상, 주재석씨 장모상, 박경화·민주원씨 시모상 = 4일 오후 8시14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7일 오전 6시, ☎ 02-2072-2011  
▲ 권상용씨 별세, 권승오(중앙일보플러스 경영지원실장)·권종오(SBS 보도본부 선임기자)·권민수(석계초등학교 직원)씨 부친상, 정선임·손수경씨 시부상 = 5일 오전 1시 50분, 서울 노원구 노원초등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7일 오전 8시, ☎ 02-970-8444  
▲ 박해봉씨 별세, 박여진(국제신문 편집부 기자)씨 부친상 = 4일, 경남 창원 삼성창원병원(마산삼성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6일 오전 6시 30분, ☎ 055-233-5131



# 롯데ON, 롯데리아 거점삼아 '400개 상품 1시간 무료배송'

잠실역 주변 2km 반경 범위 대상 GRS상품 시범운영, 8월부터 확대 1만2000원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롯데가 마트와 백화점의 '바로배송'에 이어 식품사까지 '1시간 배송'을 선보인다

통합 온라인몰인 롯데ON은 오는 7일부터 잠실지역에서 '한시간배송 잠실' 서비스를 시작하고 5일 밝혔다.

롯데ON의 '한시간배송 잠실' 서비스는 롯데리아의 배달을 활용해 상품을 배송한다. 먼저 잠실역 주변 2km 반경 범위에서 롯데GRS의 상품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롭스의 상품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한시간배송 잠실' 서비스는 롯데 유통사와 식품사가 협업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통합 배송 서비스다. 단순히 식품



롯데ON, GRS와 손잡고 배송 강화.

/롯데쇼핑

사의 상품을 롯데ON에서 판매하는 단계를 넘어 배송 서비스를 공유하는데 의미가 있다.

롯데ON은 이번 잠실지역 시범 운영을 통해 식품 계열사의 매장을 롯데ON 배송 거점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부를 실험한다.

먼저 롯데ON은 '한시간배송 잠실' 서비스의 통합 배송을 위해 롯데리아 롯데백화점잠실점(잠실역 지하에 위치)을 거점센터로 활용한다. 고객이 주문한 여러 상품은 거점센터인 롯데리아 롯데백화점잠실점에 모이고, 거점센터에서 상품을 하나로 포장해 라이더를

통해 고객에게 배송한다. 시범적으로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 도넛, 빌라드살룻 등 4개 브랜드의 110여 가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롯데GRS의 여러 개 브랜드 상품을 구입해도 한번에 결제하고 배송 받을 수 있다.

7월 한 달 간은 롯데GRS상품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8월부터는 '한시간배송 잠실' 서비스 대상 품목을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롭스 등 유통사의 400여 개 상품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시간배송 잠실' 서비스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하며, 1만 2000원 이상 주문 시 무료 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접 수령을 원하는 고객은 주문 후 30분 내 픽업이 가능한 지정 매장에서 픽업할 수도 있다.

이번 '한시간배송 잠실' 서비스는 롯데쇼핑의 '옴니협업체'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실제 모델로 발전한 케이스다. 지난 3월 강희태 대표이사 지시로

데쇼핑 내 각 사업부의 디지털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9명을 선발해 '옴니협업체'를 꾸렸다.

한 달간의 연구 끝에 옴니협업체는 '롯데 상품을 한번에 구매해서 배송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대표이사는 옴니협업체 의견에 대해 '빠르게 시도하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답했고, 롯데e커머스가 과제를 즉시 추진했다. 이번에 롯데 GRS와 함께 선보이는 '한시간배송 잠실' 서비스가 그 결과물이다.

롯데e커머스 최희관 O40 부부장은 "이번에 선보이는 '한시간배송 잠실' 서비스는 테스트를 거쳐, 향후 다양한 형태로 활용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관점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갤러리아백화점

## 기내트롤리 재해석 '서랍장' "가정서 여행분위기 느껴요"

갤러리아 명품관, 5층에 편집샵 '트롤리 스위스에어 에디션' 준비

갤러리아 명품관은 가정에서 여행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이색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갤러리아가 선보이는 상품은 명품관 웨스트 5층 라이프스타일 편집샵 루밍에서 전개하는 아비아티크 샵(Aviatik Shop)의 트롤리(바퀴달린 수납 가구)로, 이 브랜드는 지난 12년간 기내 트롤리를 제작해 왔다.

해당 상품은 기내에서 사용하는 트롤리를 재해석한 상품으로 독특한 디자인이 가정 또는 사무실에서 재미와 감각적인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인테리어 상품이다. 제품명은 '트롤리 스위스에어 에디션'으로 정밀 가공된 스위스 제품이며 표면이 산화 처리 되어있는 특징을 갖는다. 제품 내부는 3개의 서랍장과 2개의 선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격은 192만원이다. /신원선 기자

## 던킨 커피블렌드 '센트럴파크'

SPC그룹이 운영하는 던킨이 새로운 커피 블렌드 '센트럴파크'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던킨의 '센트럴파크'는 도심 속 오아시스처럼 커피 한잔의 진한 휴식을 즐긴다는 콘셉트로 출시한 새로운 커피 블렌드다. 세 가지 원두(우간다·파푸아뉴기니·콜롬비아)를 풍

부한 맛의 비율로 조합하여 미디엄로스팅으로 볶아냈다. 풍성한 커피향과 부드러운 산뜻한 산미와 기분 좋은 단맛을 즐길 수 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조효정 기자 princess@

## "집콕·여행 대표상품 한곳서 만나요"

현대백 무역센터점 지하 1층서 바캉스 테마 '슬기로운 휴가생활'

현대백화점이 다가오는 여름 휴가 시즌을 겨냥해 '바캉스'를 테마로 행사를 연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무역센터점 지하 1층 대행사장에서 '슬기로운 휴가생활'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패션·잡화·리빙 등 SNS상에서 인기 있는 20여 개 브랜드 등이 대거 참여해 휴가 시즌 '집콕'과 '여행'에 어울리는 상품들을 선보인다. 대표적인 브랜드는 20대 여성에게 인기가 높은 '윤서울', 니트 전문 브랜드 '리나펑', 장소영 디자이너 브랜드 '가즈드랑', 여행용 가방 브랜드 '럭키 플래닛', 유럽 인기 캠핑용품 브랜드 '에고이 캠핑박스', 독일 친환경 도자기 '에센바흐' 등이다. /신원선 기자

현대백화점은 행사 기간 동안 이들 브랜드의 대표 상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50% 저렴하게 선보이고, 브랜드별로 '1+1 증정', '샘플 세일' 등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대표 상품은 윤서울 알라딘 바지, 리나펑 원피스, 가즈드랑 린넨 드레스 등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홈캉스를 즐기는 '집콕족'들과 여행을 계획하는 '여행족'들을 동시에 겨냥해 기획했다"며 "온라인에서 유명한 패션·리빙 브랜드를 한자리에 모아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대아울렛도 점포별로 여름 휴가 시즌을 겨냥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은 오는 12일까지 2층 나이키 팩토리 스토어에서 나이키 신발 전 제품을 아울렛 가격에서 추가 15% 할인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



고객이 이마트에서 숙성초밥을 구매하고 있다. /이마트

## 이마트, 숙성초밥 2종 12개 한팩 1만2980원

고급 일식집에서나 맛보던 '숙성 초밥'이마트에 등장했다.

이마트가 어종별로 숙성 방식을 달리한 숙성 초밥 2종을 출시한다. '다시마 숙성 생연어초밥', '저온 숙성 광어초밥' 2종이며 초밥이 12개 들어있는 한 팩을 각각 1만2980원에 판매한다.

이마트는 초밥 시장이 확대되면서 프리미엄 초밥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 유통업체와 차별화된 숙성 초밥 상품을 개발했다.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초밥 어종인 연어와 광어 숙성 초밥은 상시적으로 판매하고, 제철 어종 숙성 초밥도 추가 개발해 시즌별로 운영할 방침이다.

숙성 과정을 거쳤음에도 가격은 기존 생연어초밥 상품 대비 1입당 가격이 약 20% 더 저렴하다.

일반적으로 숙성 초밥은 일반 초밥에 비해 생산 단가가 10% 가량 높지만 이마트는 생산 효율성을 강화해 오히려 상품 가격을 낮췄다.

일례로 기존 연어 초밥을 만들 때에는 껍질과 지느러미 등이 제거되지 않은 연어 순살을 매장에서 직접 손질 후 초밥을 만들어 손질 작업이 많이 필요했다. /신원선 기자

## 이마트24, 와인 단독브랜드 '꼬모' 론칭

이마트24가 유명 산지의 대표적인 와인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와인 단독브랜드인 '꼬모(COMO)'를 새롭게 론칭하고, 와인 라인업을 확대한다.

이마트24는 와인 소비가 일상화, 대중화 되고, 근거리 편의점에서 와인을 구입하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퀄리티 높은 와인을 시리즈로 기획하게 됐다.

꼬모 와인은 와인을 처음 시작하는 초심자부터 와인 애호가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와인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는 것을 콘셉트로 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질

레, 이태리, 아르헨티나, 프랑스 등 유명 와인 산지별로 기본이 되는 대표적인 와인을 만원 이하의 가격대로 즐길 수 있다. 꼬모(COMO)라는 이름은 'Convenient Moment'의 줄임말로, 와인을 즐기는 가장 편안하고 적당한 순간을 의미한다. 이 브랜드는 7개의 네이밍 후보군 중 임직원의 투표를 통해 선정됐다.

꼬모 와인 2종은 각 9900원이 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급스러운 맛과 품질의 와인을 즐길 수 있어, 고객들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신원선 기자



꼬모 까르베네쇼비농(왼쪽), 꼬모 모스카토 /이마트24



# 4년간 이어진 보툴리눔 균주전쟁... 이번 주 분수령

메디톡스, ITC에 대응제약 제조 대응제약 "메디톡스 약사법 위반" 예비판결서 승패 방향... 최종은 11월



메디톡신

제조공정을 담은 기술문서 등을 훔쳐가 나보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미국 ITC에 영업상 비밀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의 판결은 당초 지난달 나올 예정이었지만, 대응제약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받기로 하면서 일정을 변경했다. 대응제약은 메디톡스가 국내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메디톡신을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판결



나보타

은 오는 11월 초로 예정돼 있지만, 예비판결에서 승패의 방향이 결정나는 만큼 이번 판결의 결과가 업계의 최대 관심사다.

메디톡스는 2016년 대응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이후 국내외에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대응제약은 그때마다 경쟁사의 음해라고 반박해왔다.

ITC의 결과는 양사는 물론 국내 보톡스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다면 대응제약에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도 있다.

보톡스 균주의 주인찾기 분쟁은 대응제약에 이어 국내 다른 보톡스 기업에 대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응제약은 기업의 신뢰도 추락은 물론 나보타의 판매도 어려워진다.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나보타의 행보가 완전히 가로막힐 가능성도 크다. 국내에서도 각종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

메디톡스가 패소한다면 회사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달 무허가 원액 사용, 허위서류 작성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주력 상품인 메디톡신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ITC 소송에서 패하면 메디톡신의 판매 제한은 물론, 양

사의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대응제약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등을 모두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양사는 여전히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ITC 판정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메디톡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예정됐던 품목허가 취소가 이달 14일 까지 유예되면서 ITC 소송 결과에 식약처의 조치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 기대가 커졌다.

대응제약 역시 ITC 소송으로 나보타의 균주 동용 의혹은 모두 벗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응제약 역시 "ITC 소송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확인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보복소비 업고 뿔뿔... 명품 매출 최대 5배 증가

이베이코리아, 연중 최대규모 행사 G마켓 명품 직구매출 신장률 429% 파격적인 할인쿠폰, 모객에 큰 역할



이베이코리아에서 판매중인 명품 제품

패션분야의 온라인 할인행사에서 명품 직구가 매출과 모객을 견인하는 효과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과 옥션은 '패션뷰티 빅세일' 프로모션 첫 날인 7월 1일, 명품 명품 직구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최대 5배 이상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기간 G마켓 명품 해외직구 매출 신장률은 429%, 옥션은 3배 가까운 161% 신장세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일명 '보복소비'가 확대되는 가운데 G마켓과 옥션이 패션뷰티 단일 프로모션으로는 연중 최대규모의 행사를 열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해당 기간 G마켓 실시간 인기 검색어 TOP10에 '명품 직구'가 상단 노출되는 등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한 '목적형 구매' 수요가 많았다.

파격적인 할인 쿠폰도 모객에 큰 역할을 했다. 오는 7일까지 진행되는 '패션뷰티 빅세일'에서는 최대 20만원까지 할인되는 15% 할인쿠폰을 매일 2장씩 제공한다. 프리미엄 멤버십 회원인 스마일클럽에게는 20% 할인쿠폰을 매일 4장씩 추가로 지급한다. 할인 폭이 20만원대로 큰 만큼 고가격대의 명품을 구매했을 때, 실제로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는 것이다.

G마켓과 옥션은 구찌, 버버리, 생로랑, 프라다 등 유럽 주요국 현지 백화점과 아울렛 상품을 소싱해 할인가에 판매한다. 추천 상품으로, '에르메스H오란 슬라이더 플랫폼 슬리퍼(스마일클럽 쿠폰 혜택가 81만원대)'와 '로저비비에

벨 비비에 발레리나 플랫폼(스마일클럽 혜택가 84만원대)' 등이 있다. 또한 레트로 트렌드에 발맞춰 다시 떠오른 '셀린노 폴코백(트리오페 캔버스(스마일클럽 혜택가 176만원대)' 등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다.

이베이코리아 해외직구팀 박민혁 매니저는 "소비 심리가 점차 회복세에 들어가고, 여기에 보복소비 트렌드가 확대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명품 직구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며 "G마켓과 옥션이 선보이는 '명품직구' 상품의 경우 오픈마켓 최초 '명품 감정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믿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케어존, 나뽕작가와 노르데나우 워터라인 협업

LG생활건강의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케어존'이 따뜻한 감성의 일러스트레이터 '나뽕' 작가와 협업한 '노르데나우 워터라인 끼리 콜라보레이션' 3종을 5일 출시했다.



뿐만 아니라 용기에도 끼리 디자인을 적용해 소장가치를 높였다. 또한 케어존은 세안 직후 건조한 피부에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해 일명 '3초 세럼'으로 불리는 제품 특성을 활용, 어느새 따라부르게 되는 '일!이!삼! 3초 샤워세럼' 송과 바이럴 영상을 제작해 디지털 캠페인도 전개 중이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 LG생활건강 '빌리프' '아쿠아밤 비타 워터 크림'

LG생활건강이 비타민과 히알루론산을 듬뿍 머금은 수분 방울이 터지면서 피부에 청량한 수분감을 선사하는 빌리프의 '아쿠아밤 비타 워터 크림(사진)'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트루 허브 코스메틱 브랜드 빌리프가 새롭게 선보인 '아쿠아 밤 비타 워터 크림'은 '비타민 폭탄 수분 크림'이라는 애칭에 걸맞게, 피부에 바르는 순간 비타민을 함유한 수분에 센스가 폭발처럼 상쾌하게 터진다. /조효정 기자



## 비디비치, 폼클렌징 누적 1000만개 판매

중국인 140명 중 1명이 구매한 셈

비디비치에 텐 밀리언셀러 제품이 탄생했다.

신세기인태내셔널의 프리미엄 화장품 브랜드 비디비치는 '페이스 클리어 퍼펙트 클렌징 폼(사진)'이 자사 제품 중 처음으로 누적 판매량 1000만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중국 전체 인구가 14억명인 것을 감안하면 140명 중 1명이 구입한 셈이다.

2016년 6월 출시된 이 제품은 2018년 9월 누적판매량 100만개를 달성한 이후 2년이 채 되지 않아 판매량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바이러스 영향으로 면세점 판로가 막힌 상황에서 중국 내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거둔 성과라 더욱 의미 있다.



페이스 클리어 퍼펙트 클렌징 폼이 텐 밀리언셀러 제품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비디비치의 치밀한 전략이 있었다.

비디비치는 기획 단계부터 중국 시장을 겨냥해 중국 소비자들의 취향을 면밀히 분석했다.

중국 고객들이 선호하는 크림 타입의 제형으로 지성, 건성, 민감성 등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으며, 품질과 패키지는 해외 럭셔리 수준으로 올리고 가격은 럭셔리 브랜드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했다. 또한 피부친화적인 아미노산계 성분과 자연 유래 보습 허브 성분을 사용했다.

/신원선 기자

## 온라인전용 브랜드 론칭... 밀레니얼세대 공략

현대홈쇼핑, 홈케어 제품 선배

현대홈쇼핑이 밀레니얼 세대 공략을 위해 온라인 전용 브랜드를 선보인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상품을 개발하고, 전용 온라인몰과 SNS를 통해 20~30대 젊은 고객들의 눈길을 끌겠다는 전략이다.

현대홈쇼핑은 오는 6일 온라인 전용 홈케어 전문 브랜드 '에버블루'를 론칭한다고 5일 밝혔다.

에버블루는 20~30대 젊은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빠르게 기획해 선보이는 전문 브랜드로, 기존 현대홈쇼핑 방송이나 현대홈에서 판매하지 않고,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젊은 고객들을 공략하기 위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 채널을 별도로 만들 예정이며, 에버블루 상품과 관련한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도 제작해 선보일 계획이다.



현대홈쇼핑은 에버블루의 콘셉트를 '자연주의'로 정하고, 다목적 클리너를 첫 번째 제품으로 내놓는다. 새 제품은 천연 성분인 베이킹 소다와 구연산 등이 함유돼 짜든 때 제거에 효과가 뛰어나며, 스페인산 베르가못 천연 오일을 담아 제품 사용 후 시원한 청량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제품 디자인도 화이트와 블루를 시그니처 컬러로 정하고, 젊은 고객들이 좋아하는 모던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적용해 차별화했다. 판매 가격은 1만6900원이다. 또한 제품의 구성 성분 중 92%가 미국환경연구단체(EWG)로부터 '낮은 위험'을 의미하는 '그린' 등급을 받아 안정성을 높였다. /신원선 기자



# 삼성전자, 사랑의 열매와 비영리단체 지원

### 사회복지 지원 '나눔과꿈' 공모 3년간 최대 3억원 사업비 지원

삼성전자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가 국내 최대 사회복지 사업을 함께할 비영리 단체를 찾는다.

양측은 오는 31일까지 공모사업 '나눔과꿈'에 참여할 비영리단체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나눔과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나눔과꿈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재원이 부족해 사업을 실행하기 어려운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복지 공모사업이다. 2016년 처음 시작해 4년간 207개의 비영리 단체에 총 400억원을 지원했다.

사업신청 분야는 복지, 교육자립, 보건의료,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을 포함한다.



지난해 열린 성과평가 연구 및 선정기관 발표회.

/사랑의 열매

이와 관련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단체는 사업특성에 따라 1년간 최대 1억원부터 3년간 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시도되지 않은 창의적인 사회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 '꿈 사업'과 함

께,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진행 방식 및 전달체계 변화를 통해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는 '나눔 사업'으로도 구분된다.

일정은 9월 서류심사, 10월 면접심사를 거쳐 11월 말 최종 선정된 비영리단체를 발표한다. 내년 1월부터 사업비를 지원된다.

/김재홍 기자 juk@metroseoul.co.kr

# LG하우시스, 임직원 가족과 '행복한 공간 만들기'

LG하우시스는 지난 4일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장락분교에서 임직원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인 '행복한 공간 만들기'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비영리국제단체 한국해비타트와 함께한 이번 '행복한 공간 만들기' 행사에는 LG하우시스 임직원과 자녀 30여명이 참여해 장락분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사용할 DIY 사물함을 제작하고 학교 외벽에 벽화를 그리

는 등 환경개선 활동을 했다. 이에 앞서 LG하우시스는 지난달 말 고단열 창호 및 친환경 바닥재 등 자재를 지원해 노후된 학교 도서관 시설 개보수 공사를 미리 완료, 장락분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까지 보다 쾌적해진 도서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복한 공간 만들기'는 창호, 바닥재, 벽지 등 LG하우시스의 인테리어 자재를 활용



'행복한 공간 만들기'에 참여한 LG하우시스 직원들이 자녀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하우시스

해 낙후된 청소년 시설이나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는 재능 기부형 사회공헌 활동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AI 지나친 환상은 금물



기지수첩

채윤정  
(산업부)

최근 코로나19로 언택트가 가장 큰 트렌드가 되면서 인공지능(AI) 챗봇 도입이 급증하고 있다. 고객센터에서 AI는 이제 선택을 넘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까지 발전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지난해 AI 챗봇들을 테스트해 보다 실감감을 금할 수 없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내가 원하는 질문을 입력하면 내 의도와 상관없는 질문들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최근 챗봇업체 대표들을 만나면 이전에는 챗봇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성능이 크게 개선됐는지 질문을 던지곤 한다. 이들의 거의 공통적인 대답은 "AI가 사람처럼 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아온 AI는 현실과 괴리가 큰데, 많은 사람들이 AI에 지나친 환상을 가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AI 챗봇은 사람이 100번 이상 반복적으로 하는 말을 대신해줄 수 있어 사람의 피로도를 크게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을 오히려 강조했다. 대학 행정실에는 학사 정보 문의

가 끊이지 않고, 병원에는 예약 문의가 계속 오고, 수백번 반복되는 말을 AI가 대신해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질문은 사람이 맡아 아직은 고객센터에서 AI와 사람이 협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AI 1세대'로 잘 알려진 김진형 중앙대 석좌교수는 강연에서 "AI에 지나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현재 수준인 '내로우 AI'도 충분한 가치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곤 했다.

물론 최근 1~2년 만에 AI의 성능이 크게 개선된 것도 사실이다. 과거에는 '시리', '빅스비' 등이 기계음을 내던 게 당연했지만 AI어나운사·AI터빙은 정말 사람이 아닌 AI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을 잘 하는 AI', 영화 'HER' 속 '사만다'는 아직까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특정 분야의 일을 잘 하는 AI만으로도 각 산업 분야에서 획기적인 혁신이 가능해지고 있다. 지금은 AI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갖고 실망하기보다 어떤 분야에 AI를 적용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뒤져 있는 AI분야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고민해야 한다.

/echo@

오늘의 운세 7월 6일 (음 5월 16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 즐기며 살아. **48년생** 조사가 끝났으니 이제 실행. **60년생** 평온한 바다에서 한가하게 뱃놀이. **72년생**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84년생** 직장에서 기본 소식이 들려온다.
- 37년생** 늘 먹던 밥도 신물이 난다. **49년생** 썩지 않으려면 물은 흘러 보내야 한다. **61년생** 결혼은 돌이 했지만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길. **73년생** 올바른 처신이 구설수를 예방한다. **85년생** 비상금을 활용해서 위기를 탈출하자.
- 38년생** 뜻밖의 황재수가 있다. **50년생** 정답을 알아도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 **62년생** 비빌 언덕이 있었으면 좋겠다. **74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매사에 자중하라. **86년생** 자기중심으로부터 생각하면 조화가 깨진다.
- 39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여지지 실망은 이른다. **51년생** 조금씩 알아가는 소소한 재미가 있다. **63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잘 풀린다. **75년생** 확실한 의사표현이 매우 중요하다. **87년생** 일의 결과가 좋아 명예가.
- 40년생** 마음이 상쾌하니 일도 잘 풀린다. **52년생** 나의 잦대로 남을 평가하지 마라. **64년생** 호로애락을 얼굴에 나타내지 마라. **76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쉬지 말고 노력. **88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
- 41년생** 힘든 일은 자식의 도움으로 해결. **53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마라. **65년생** 과대포장은 상대를 기만하는 행위. **77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89년생** 광기와 천재성의 거리는 결국 성공으로 측정.

- 42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54년생** 이기적인 마음으로 실수를 한다. **66년생**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실수가 없다. **78년생**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이니 무슨 일이든 참여. **90년생**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 43년생** 가진 돈을 체크하고 신중하게 지출. **55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언행을 조심. **67년생** 모두 가질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 **79년생** 좋은 결과는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됨을 명심. **91년생** 성공한 사람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안전.
- 44년생** 익숙한 일도 신중하게 대하라. **56년생** 본심수가 있으니 휴대폰을 잘 챙겨라. **68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는 형국. **80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한다. **92년생** 부모님의 건강과 안부를 챙기자.
- 45년생** 원하던 것을 손에 넣는다. **57년생**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떠나보자. **69년생**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라. **81년생** 새로운 인맥으로 얻은 정보가 큰 이득을 가져온다. **93년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 46년생** 진실은 밝혀려 들수록 때가 묻는다. **58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날이다. **70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82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하는 날이다. **94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변화가 없다.
- 47년생** 슬픔도 이제 지나간다. **59년생**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가려서 하라. **71년생** 오늘 걸어야 내일 뛰지 않는다. **83년생** 우물에서 송충 찾지 말고 매사에 순서대로. **95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을 하게 된다.



# 김상회의 4계

## 역으로 보는 미래상

우선 생각나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예언서로는 정감록(鄭鑑錄)이 대표적일 것이다. 그 외 남사고록(南師古錄)을 비롯하여 토정비결과 송하비결 등 여러 예언서들이 작금의 혼란스러운 시대상이 등장할 때마다 화제가 된다.

조선의 근대사에 등장하는 김일부선생의 정역(正易)은 아직도 그 해석이 난해하여 대중적이지 못한 것이 유감이나 역시 근대에 들어 주역에 달통하신 것으로 탄핵대종사가 칭찬하신 바에 의하면 그 가치가 심대하다고 여겨진다.

신비하고 신비한 위의 여러 예언서도 있으며 필자는 스승이셨던 단원선생님과 이석영선생과의 역학인연 또한 높게 친다. 그 분들 생전에 더 치열하게 공부하지 못함이 한스러울 뿐이다.

아직도 뇌리에 분명한 건, 앞으로 이십 년 안에 큰 혼란이 오는데, 할 수 있는 건 역(易)공부 밖에 없으니 부지런히 공부하란 말씀이셨다. 그리고 자네는 명을 길게 하려면 역학공부가 그 길이니 부디 매진하라는 말씀을 받은 "예." 하고 받은 귓등으로 들은 것이다.

필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어렵고 혼란스런 시대를 당하여 역학으로 그 길을 헤쳐 나가고 세상에 힘이 되게 하란 말씀인 것을 근간해야 더욱 처절히 실감한다. 더 하나 더하신 말씀은, 선한 사람을 근처에 두라는 말씀이었다. 이 말씀인즉 이해를 따지는 사람을 경계하란 뜻으로 해석한다.

다가 올 불확실성의 시대를 지혜롭게 대처할 방법은 내적으로는 마음공부요, 외적으로는 세상을 읽는 지도를 공부함이니 그것은 바로 역의 길이다. 우주의 질서와 변화하는 이치의 틀에서 각자의 미래를 읽는 지도, 지도가 있으면 처음 가는 길도 수월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토쿠365**

문제풀이: 3X3 스토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3X4 몬스터스토쿠는 가로세로, 3X4 박스에 1부터 9, A, B, C의 숫자, 영문이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정답

3	9		5		1
	5	7	9	1	
			8		7
6			7		8
5					1
	4		9		3
		6		9	
9			2	3	5
	8		6		9

6	B	A		8		4	7	
9	8					1	A	
5		3		B			6	2
2	A	C			5	7	3	
7	8				9			6
B				2	1	C		A
	1		6	7	3			4
4			A				8	1
9	7		1				C	B
5	6			4		A		3
C	2						7	6
	4	B		7		8	9	5

7	E	6	L	1	9	S	8	Z
L	9	S	E	8	Z	7	1	6
8	Z	1	6	S	7	9	E	L
E	L	9	8	6	S	Z	7	1
1	6	7	9	E	8	L	S	
S	8	Z	7	L	1	E	6	9
6	S	L	Z	E	8	1	9	7
Z	7	E	1	9	6	L	S	8
9	1	8	S	7	L	6	Z	E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48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584호



FFTK 2020 인터뷰

김기웅 위쿱 대표



# “외식업 언택트 대세지만 조리는 결국 오프라인서 공유주방이 새물결 될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로드샵 중심의 창업이 이커머스 중심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음식시장이 급격히 커진다면 공유주방은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쿱) 대표는 코로나19로 외식업이 위기를 맞았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구매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사업의 큰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공유주방이라는 새로운 물결이 생겨났다고 봤다. 다만, 코로나19는 그 물결의 세기와 속도를 몇 곱절 끌어올렸을 뿐이다.

김 대표는 지난 2015년 국내 첫 공유주방 ‘위쿱’을 열며, F&B 분야에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들여온 선구자다. 김 대표가 지칭하는 공유주

방은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개념을 넘어선다. 그는 배달음식점을 위한 배달형, 포장공이 가능한 제조형, 시간대별로 주방을 나눠쓰는 식당형 공유주방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위쿱만의 새로운 공유주방 트렌드를 선도해 가고 있다.

### -공유주방의 강점은 뭐가.

“외식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 실력은 있으나 초기 자본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간과 브랜드들을 제공한다. 적은 창업비용으로 본인들의 제품을 직접 생산해서 시장에 팔아보면서 검증할 수 있다. 아무리 아이템이 좋다 해도 결국에는 돈을 받고 팔아봐야 검증이 된다. 비용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 -공유주방의 성장성은.

“공유주방을 창업하려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본다. 국내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공유주방을 통해서 낮은 창업비용으로 음식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공유주방 산업의 수요와 공급, 양쪽 측면이 모두 성장하게 될거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생산 공간의 변화가 일어나 음식 산업이 비대면화 된다 해도 결국 음식은 오프라인에서 만들 수밖에 없다. 예전처럼 본인만의 공간을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국내 공유주방 시장 개척 초기 자본 부족한 창업자 공유주방으로 도전 발판

### 코로나19 여파로 공유주방 수요·공급 모두 성장할 것

### 푸드 인큐베이션 제공하고 카테고리별 콘텐츠 확대

공유주방의 형태, 클라우드 키친 형태로 만들어져 이 공간에서 음식 생산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 -국내 식음료 산업의 변화를 체감하나.

“주목할만한 지표중 하나가 식료품의 해외 직접 구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SNS나 해외 경험이 늘면서 다양한 음식이 있다는 것 알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의 외식업은 지나치게 프랜차이즈가 많고 대기업 중심이었다.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음식 있다는 것 알기 어렵고, 기업들은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 위주로 생산하면서 산업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외식업도 식당이 성공하면 프랜차이즈로 만들려는 욕구가 강했다. 하지만 요즘 푸드메이커(위쿱 입점 업체)들의 제품을 보면 단백질이나 비건 채식 도시락과 같은 음식들이 늘어난다. 예전 돈이 안될거 같은 음식이지만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팔리고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변하고 있다. 유통 채널이 다양해지고 리치 마켓을 타깃으로 하는 채널도 생겨나고

있다는 것도 큰 역할을 한다.”

### -코로나19 이후 외식업의 변화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오프라인 시장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변화의 큰 방향이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소규모 강소 브랜드들, 정말 개성 있는 가치 중심의 브랜드들로 옮겨가고 있다. 소비자들이 코로나19로 갇혀있다 나왔을 때 가고 싶은 곳은 동네 프랜차이즈 밥집보다는 유명 맛집일 것이다. 공유식당도 같은 방향(소규모 강소 브랜드, 아주 개성 강한 식당들)으로 성장할 거라고 믿는다.”

### -‘소규모 강소브랜드’로서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은.

“요즘 홍보는 바이럴이다. 인위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 공간에 와서 경험하고 스스로 알리는 효과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가령 소비자들이 음식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올릴 만한 아이템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음식을 콘텐츠화하는 방식이다.”

### -구체적인 음식의 콘텐츠화는.

“우리는 ‘푸드 인큐베이션’이라고 한다. 외식업 또는 식품업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에게 1~3개월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음식을 둘러싼 디자인, 마케팅, 해당 음식이 속한 브랜드 등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이다. 음식점들은 맛은 잘 내지만 브랜딩이 안 돼 있다든가, 브랜드가 잘 되어 있는 반면 메뉴 구성이 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든 걸 다 갖추기는 매우 어렵다. 각각의 부족한 면을 채우는 것을 돕고, 함께 성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제공하는 푸드 인큐베이션이다.”

### -여러 업체가 입점하니 아무래도 위

생이 가장 중요하겠나.

“내부에 식품안전팀이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만든 공유주방 가이드라인도 존재한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위생관리를 하고 있다. 또 ‘위쿱 화이트’라는 자체 인증 제도를 마련해 위생 점수가 높은 푸드메이커들한테 인증을 해주고 있다.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인증이지만 회사가 확장하면 할수록 널리 쓰이게 할 것이다.”

### -20~30개 공유업체가 생겨났는데 차별성을 어떻게 둘 것인가.

“이미 비즈니스 모델에서 차별성을 갖겠다고 본다. 공유업체들은 대체로 배달 음식점들을 모아놓은 배달형 공유주방이고 임대모델을 택하고 있다. 빌린 공간을 쪼개서 방 한칸씩 월세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빌려주는 구조다. 위쿱은 입점한 푸드메이커들과 이익을 나누는 모델이다.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 결국 잘되면 같이 잘되고 안되면 같이 안되는 구조라 큰 차별성이 있다.”

### -앞으로 어떤 것들을 기획하고 있나.

“음식 카테고리별로 콘텐츠를 하나씩 늘려가고 있다. 배달형은 한식, 양식, 아시아식으로 카테고리를 만든다. 제조형 같은 경우, 스마트스토어나 온라인 몰에서 살 수 있는 형태라서 포장된 건간 간식, 비건 간식 처럼 간식이나 디저트류로 패키지 푸드를 잘 만들 수 있게 갖춰져 있다. 식당형은 푸드메이커들이 한식이란 일식과 같이 요리 기량을 뽐낼 수 있는 무대로 만들어왔다. 카페 베이커리 브랜드도 운영 중이다. 주방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원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손진영 기자 son@

## 새로 나온 책

### 국경을 초월한 검은돈 ‘21세기 해적질’

1962년 런던의 은행가들은 세상을 바꿀 만한 기발한 약탈 행위, ‘역외’를 떠올렸다. 이 발상의 핵심은 물리적으로는 사법관할구역 안에 현존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사법관할구역 밖에 있는 자산을 만드는 것이다. 머니랜드는 자산의 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구상 모든 나라의 법률을 왜곡시켰다. 제1세계의 조세 기피자들과 제3세계의 도둑 정치가들이 머니랜드에 돈을 싸들고 찾아왔다. 검은돈은 국경을 초월해 자유롭게 넘나들며 방대한 저수지를 이뤘다.

머니랜드는 각국의 제도상 허점과 사법관할구역 간 차이를 교묘하게 악용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다.

머니랜드를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 산

업은 ‘자산 숨기기’다.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방법은 서류상으로는 존재하는 유명 회사를 만들어 소유권을 흐리는 것이다. 이를테면 런던의 할리 스트리트에 명목상 회사를 두고 이를 다시 리히텐슈타인, 맨섬, 미국 델라웨어주 케이맨제도, 라이베리아 등 역외 사법관할구역 소유로 등록하는 것이다. 법인 구조물을 연쇄적으로 겹쳐놓은 뒤, 금융 비밀주의의 중심지로 정평 난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를 덧붙이면 자산의 기원과 그 소유권 모두를 숨기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저자는 점점 더 교묘해지는 조세 회피, 탈세, 돈세탁 수법은 과세 당국과 자본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진화론적 군



### 머니랜드

올리버 비로 지음/박중서 옮김/북트리거

비 경쟁의 결과라고 지적한다. 역만장자와 부패한 정치인이 유능한 금융인과 법률가를 방패 삼아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막대한 부를 축적할 때 서민들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며 살아간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21세기 해적질을 통렬히 고발한다. 448쪽. 1만9800원. /김현정 기자 hjk1@

### 선을 지키는 사회, 선을 넘는 사회

미셸 켈랜드 지음/이진진 옮김/시공사

싱가포르의 보도는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지만, 미국의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이버린쓰레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마약을 소지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지만, 네덜란드에서는 대마초를 커피숍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한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저자는 지구상 모든 나라의 문화 분열을 사회 규범의 강도로 나눠 설명한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은 사회 규범이 엄격한 뾰족한 문화에서 사느냐 그 반대인 느슨한 문화에서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448쪽. 2만원.

### 세계시민주의의 전통

마사 C. 누스바움 지음/강동혁 옮김/뿌리와이파리

그리스의 키니코스학과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어디 출신이냐’는 물음에 ‘나는 세계의 시민이다’고 답했다. 디오게네스는 혈통이나 소속 도시, 사회적 계층, 성별을 선언하는 대신 자신을 인간으로 정의함으로써 인류 평등의 가치를 암묵적으로 주장했다. 책은 그리스와 로마의 스토아주의 철학자들로부터 시작해 17세기의 휴고 그로티우스, 18세기의 애덤 스미스, 현대의 국제 인권운동에 이르기까지 세계시민주의의 철학적 전통을 좇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한다. 348쪽. 1만8000원.





대웅제약



꼼꼼한 엄마들이 제대로 고른 대세비타민

# 임팩타민

필수비타민B 8종으로  
피로는 없애고  
에너지는 만들고!



광고심의필: 2019-1500-0002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비타민B의 더블임팩트 효과!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 드셔본 분들의 추천!

한 번 경험해보신 분들이 임팩타민을 추천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 필수비타민B 8종을 짝!

필수비타민B 8종을 모두 함유하여 피로회복부터 에너지 생성까지 도움을 줍니다.



### 편리한 복용!

냄새를 최소화한 소형정제로 복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

활성형 벤포티아민(B<sub>1</sub>)이 들어있어 생체이용율이 최대 8배 우수합니다.



### 항산화성분에 UDCA까지!

필수비타민B 8종은 물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 비타민E, 셀레늄부터 아연, UDCA까지 담았습니다.



- 육체피로
- 체력저하
- 눈의 피로
- 구내염
- 근육통, 관절통, 신경통

문의: 080-550-8308~9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임팩타민이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찍어보세요  
(판매약국찾기)

<http://www.impactamin.kr/>



# “방역단계 격상... 코로나19 철통방어”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



김영록 전남도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역사회에 계속되자 전남도가 방역단계를 ‘생활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5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우리 도는 6일부터 방역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수도권, 충청권, 전북에 이어 광주·전남 지역에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며 “사찰과 교회, 병원, 요양시설, 방문 판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지역감염이 계속되어, 더 이상 ‘생활 속 거리두기’

만으로는 청정 전남을 지켜내기 어려운 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요 방역 조치로는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음식점·카페 등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도의 무효화했다.

도내 전역에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과 식품접객업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행정조치는 이미 시행 중이다.

노인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외부인 면회도 금지된다. 이들 시설은 이달 3일부터 면회 금지와 입소자·종사자 출입을 제한하는 준코호트 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된다. 유치원·초중고 학생의 등교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부·도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생활화이며 무더운 날씨로 힘들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며 “지역감염 차단에 성패를 가르는 중대 시점인 만큼 위기상황임을 인식하고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의 광주시 지역사회 내 급격한 확산 속에 인근 전남지역에

도 감염전파가 계속되면서 방역 당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특히 전남 26번 확진자의 경우, 동선이 여러 지역에 걸쳐 있고 불특정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데다, 증상 발현 이후에도 회사에 계속 출근하고 선별진료소를 다녀온 이후에도 직장에 들르는 등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목포시에서 3명의 지역감염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4일 오후와 이날 새벽 연이어 전남 26번 27번 확진자가 발생했다. 26번, 27번 확진자는 광주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방역 당국은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감염원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50대 여성인 26번 확진자의 경우 직장은 함평군에, 거주지는 나주시에 있고 동선이 직장과 집은 물론 광주·화순까지 퍼져있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 동네방네



나주경찰서는 코로나19 외국인 방역 사각지대를 집중점검하고 있다.

### 나주경찰서-나주시 코로나19 사각지대 방역

나주경찰서는 외국인 방역 사각지대 집중 점검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나주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5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무리를 이루어 집단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할 수 있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 의심에도 강제출국 위험성이 있어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집단생활을 하는 외국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거주형태 및 생활환경 특성상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 될 위험성이 있다.

이에 나주경찰서와 나주시가 합동으로 외국인 방역 사각지대 집중점검 및 방역활동을 실시하게 됐다.

방역활동은 외국인 밀집지역 원룸촌 중심으로 전개되며 손소독제·소독약·마스크 등 방역물품 공급과 함께 외국인 주민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하여 외국인 맞춤형 방역활동을 수행한다. /전남=나주=강성대 기자 ksd1008@

##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등 세계기록유산 목판 공개

한국국학진흥원, 전시체험관 개관



세계기록유산 전시체험관 개관. /안동시

한국국학진흥원이 세계기록유산 목판을 처음으로 일반인에 공개한다.

한국국학진흥원은 5일 세계기록유산을 일반인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세계기록유산 전시체험관을 오는 7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세계기록유산 전시체험관은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한 세계기록유산을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고, 관람객에게 쾌적한 전시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다. 문화재청과 경북도, 안동시 지원으로 2017년 11월 착공, 지난해 12월 완공했다.

전시체험관은 지하 1층에 현판 전문 수장고, 지상 1층에 유교책판을 관람할 수 있는 개방형 수장고가 있다.

지상 2층에는 현판을 관람하는 개방형 수장고 및 한국국학진흥원이 보유한 세계기록유산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하지만 이들 시설물은 안전한 보관을 위해 비공개 수장시설로 운영돼 지

금까지 일반인은 관람할 수 없었다.

한편 한국국학진흥원은 2015년 ‘한국의 유교책판’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2016년에는 ‘한국의 편액’을 아시아·태평양지역 기록유산에 각각 등재시켰다.

2017년에는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2018년에는 ‘만인의 청원, 만인소’를 아시아·태평양지역 기록유산에 연달아 등재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구축되면 세계기록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서 더욱 빛날 것으로 기대한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 광주시, 어린이집 1073곳 전면 휴원

코로나19 감염 최소화 일환 실시

광주광역시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1073곳을 전면 휴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5일간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 이상 발생하고 이에 따른 접촉자가 급증하자,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어린이집을 통한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은 6월 1일 휴원이 해제된 지 약 1개월 만에 다시 재휴원에 돌입하게 됐다.

단, 광주시는 휴원기간 맞벌이가정 등 가정양육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교사는 정상근무하는

등 긴급보육 실시로 아이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간제보육제공기관(29곳)은 정상운영한다.

또 휴원 여부와 관계없이 학부모의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결석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 현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더라도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특례를 인정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일 방역대응체계를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조정하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회 및 모임을 금지한 바 있다.

/광주=김태수 기자



담양군 코로나19 감염확산 차단 긴급 행정명령 발동

## 곡성군, 오늘 소상공인 지원센터 개소

곡성군은 오는 6일 곡성읍 중앙로에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개소한다.

센터는 상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심 시가지에 마련됐다. 아울러 곡성군은 지난 4월부터 직원을 채용해 도시경계과에서 근무하면서 상담요령과 행정업무 등을 익힐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앞으로 센터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먼저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시

장진흥공단 등 소상공인 지원 기관 간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한 종합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통로로서 기능하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곡성군을 식업지부 사무실에서 진행하던 (재)전남신용보증재단의 출장상담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재개할 계획이다.

/전남=곡성=김태수 기자

## 담양군, 모임금지 등 코로나19 차단 총력

대책회의 열고 행정명령 발동

담양군이 인근 광주광역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담양군은 긴급한 방역과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3일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내 사회단체의 집회와 행사 금지, 방역수칙 준수와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명령에 따라 지난 4일부터 2주간 다중이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 행사를 금지하고 실외 스포츠시설과 담빛수영장, 문화회관, 체육관 등 실내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한다.

또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을 임시 폐쇄하고 죽녹원, 메타프로방스 등 군 주요 관광지의 입장객 발열 검사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전남=담양=김태수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화순군, 유입차단 총력전

화순군은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확산세를 예의주시하며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화순군은 지난 2일 김중갑 부군수 주재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적인 지역 감염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긴급 대책회의는 화순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편성된 10개 협업부서의 실·과·소장과 읍·면장이 참석해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전남=화순=강성대 기자

## 안동시, 저소득층 연탄지원 31일까지 대상자 신청접수

안동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바우처) 지원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은 해당 가구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향상 및 무연탄 수입안정을 위하여 지난 2008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으로 매년 관내 1,000여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이 해당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경북=안동=문봉현 기자 newsmun@



# 양천·강서·구로·관악 등 서남권 서울시, 가용공간 발굴 현장조사

### 2억4700만원 투입... 공간 발굴 신속사업으로 공급한계 발생 현장조사 용역업체 14일까지 모집

서울시가 서남권 지역에 이용 가능한 토지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2억4700만원을 투입해 '잡채적 개발 가용 공간 발굴을 위한 서남권 현장조사' 용역에 나선다.

시는 "가용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에서 공공공간을 확보하려는 다각적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토지 중심의 신속 사업으로 인해 공공건축물과 공공공간의 공급 한계가 발생했다"고 용역 추진 배경을 밝혔다.

과업 범위는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등 서울 서남권 시유재산(건물) 630개소와 그 일대 부지로 총면적은 162.47㎢다.

이번 용역은 ▲서울시 내 사용 가능한 공간을 찾기 위한 현장 조사와 분석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방법 제안 ▲대상지 현황 조사·분석을 통한 가용공간 구체화 ▲서남권 조사를 토대로 한 관리카드 작성 및 유형화 ▲특화 가능한 대상지에 대한 활용 구상안 제시(5~6곳) ▲조사 결과물 활용 방안 및 관리방법 마련을 목표로 추진 된다.

시는 기존 시유재산(건물)과 그 일대를 포함한 현장 중심의 면밀한 조사로 가용공간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도시 조직의 네트워크를 고려한 활용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시는 시유재산의 공간 가치를 향상하는 한편 효율적인 활용·관리 체계를 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용역 업체는 시 발주부서와 협

의해 가용공간 발굴 방법론을 수립한다. 그다음 서남권의 토지이용환경(도시계획, 교통환경, 지역자원, 소유관계, 입지조건 포함)을 조사하고 관련 상위계획과 법규 제도, 개발 예정 사업과의 관계 등을 분석한다. 이후 서남권 내 시유재산 활용방안과 대상지 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활용성을 평가, 시사점을 도출해낸다.

이와 함께 용역 업체는 개발환경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 활용 구상안을 제시한다.

지역 정체성을 파악해 도입 가능한 시설을 제안하고 융·복합화 가능 특화 전략을 검토한다. 용역 마무리 단계에서는 활용 구상안에 대한 실행 전략과 중장기적 관리 및 개선 방안을 내놓게 된다.

시는 이달 9일부터 14일까지 '잡채적 개발 가용 공간 발굴을 위한 서남권 현장조사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모집한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10개월 동안 과업을 진행하게 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실체없는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8곳 적발

건설사 수주기회 박탈등 문제 야기

장점점을 벌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최근 타 시·도에서 전입한 31개 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적격 의심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시공능력이 없거나 부실한 페이퍼 컴퍼니(건설업 등록기준 부적격 업체)들이 공사를 맡아 건설사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하도급업체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건설사업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류 및 현

장점점을 벌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6곳은 자본금 기준에 미달했고, 3곳은 기술사 수가 법정 기준 대비 부족했으며, 4곳은 법령 기준과 달리 독립 사무공간이 없었다. 중복으로 적발된 사례들도 있었다.

시는 부적격 의심 업체에 대해 조속히 청문을 시행한 후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7월부터 서울시는 서류상으로도 요건을 갖춘 '페이퍼 컴퍼니' 단속에 입찰 단계부터 나서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3만원 내고 태양광 빌려주세요"

서울시는 사용자가 한 달에 약 3만원을 내면 태양광발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 대여사업'을 지원키로 하고, 6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용 희망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월 평균 전기사용량이 200kWh 이상인 단독주택 소유자나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선정한 7개 기업을 통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독주택은 1kW당 20만원, 공동주택은 1kW당 60만원이다.

공단이 공고한 월 대여료는 단독주택 3kW 설치 기준 3만7000~3만8000원이며, 서울시가 태양광 대여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면 약 7000원 인하된 가격으로 월 대여료가 책정된다.

이용자는 설치비용 없이 월 대여료만 납부하면 7년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고, 태양광 대여업체가 제시한 발전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발전량 보증제'를 통해 현금 보상도 받을 수 있다.

기본 7년 계약이 끝나면 무상 양도로 발전기를 소유할 수 있으며,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도 선택할 수 있다.

3kW 규모의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면 월평균 288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월 407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1년에 약 75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신청 희망자는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사업 자별 대여조건을 확인한 후 대여사업자를 선택해 직접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 성수에 '서울창업허브' 열고 스타트업 육성

### 사회적 가치 창출·기업 성장 추구 기업 입주공간 25개실로 확대 심층 대면 평가로 입주 기업 선발

서울시는 감염병·건강·안전·환경과 같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서울창업허브 성수'가 6일 문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서울창업허브 성수'는 도시문제를 해결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기업 성장을 추구하는 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발굴·육성하는 거점공간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약 300m 거리에 있으며, 연면적은 지상 2~4층 5492㎡다. 시는 올해 2~6월 기존의 '성수 IT 종합센터'를 리모델링해 코워킹 공간과 기업 입주공간을 18개실에서 25개실로 늘렸다.

시는 경쟁력 있는 도시문제 해결 스



서울창업허브 성수 전경. /서울시

타트업을 발굴해 육성하는데 기존의 공개모집 방식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임팩트 투자사(사회·환경 등 분야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

사)의 적격심사를 통과한 우수 기업을 상시로 추천받은 후 심층 대면평가를 거치는 방식으로 입주 기업을 선발키로 했다.

선발된 기업은 최대 2년간 입주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제곱미터당 월 5958원의 이용료를 내고 사무공간을 쓸 수 있다.

입주 후에는 해외 진출, 초기 투자, 시리즈 A, B 단계 투자유치까지 단계별 민간 협력 파트너를 매칭해 성장단계와 투자 규모에 따라 맞춤형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옐로우독, HGI, D3주빌리, 소풍벤처스 등 성수동 인근 임팩트 투자사들과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들과 함께 지원대상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 부산시, 치의학 제품 개발 과제 선정

지역 치의학 산업 경쟁력 강화

부산시는 지역 치의학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 중소기업의 디지털 치과의료 제품개발과제 7건, 특허출원 5건, 기술 지도·자문 5건을 선정해 총 1억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치의학 디지털상용화 기술지원사업'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치과의료 소재,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청을 받아 전문

가 평가를 거쳐 7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달부터 ▲환자 맞춤형 블록형 골이식재 제작 ▲3D프린트 모형 전용 교합기 제작 ▲구강 검진부스 ▲유니버설 지그제작 ▲1차원 회전방식을 이용한 정밀 자동스캐닝 ▲임플란트 3D 가상 수술 키오스크 개발 ▲탁상용 전동식 인상재 토출 장치 제품개발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어려움에 대한 컨설팅(기술자문)과 디지털



부산시청

치의학 산업으로 전환과정에서 도출된 핵심 기술 및 제품기술력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획득을 위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총 10개 기업을 지원한다.

/부산=허원희 기자 bsmorning@

# 서울 소재 저소득 고교생에 장학금 지원



총 지원금액 16.7억

서울장학재단은 저소득층 고등학생을 위한 '서울희망 고교장학금' 장학금을 선발한다고 5일 밝혔다.

선발된 장학생은 분기별 68만5000원 이내로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총 지원금액은 16억7000만원이다.

중위소득 90% 이내 가정의 고등학

생이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소재 고교 재학생 또는 자신이 서울시민이거나 서울시민의 자녀이면서 비서울 소재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대상이다.

교내 장학 담당 교사가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이달 14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 부분 시행에 따라 학교 유형별로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7 | 해질 / 19:56

7월 6일 (월) 음력 : 5월 16일

수도권 날씨 29~21°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9/29, 동두천 19/29, 가평 19/29, 파주 18/28, 서울 21/29, 양평 20/29, 인천 20/26, 수원 21/28, 용인 21/28, 평택 19/2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산업] 최태원 SK회장 SK서린빌딩 직원에 깜짝선물 08



Life

[라이프] 롯데ON 롯데리아 거점삼아 '1시간 배송' 선배 니



# 집에서... 호텔에서... 국내에서... 어디라도 좋아요, 즐거움만 있다면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는 물론 국내 여행지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가기가 쉽지 않다. 여행업계는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옵션의 숙박상품을 적극적으로 선보이며 이번 코로나19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로 밀집된 곳을 피하는 게 생활 지침이 되면서, 여행지에서도 렌터카를 빌려 이동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에어비앤비 온라인 요리 클래스. 에어비앤비

## 에어비앤비, 미쉐린 스타 셰프들과 함께 요리를

모모푸쿠 레스토랑 그룹 창업자인 데이비드 장, 610 매그놀리아를 운영 중인 스타 셰프 에드워드 리, 레스토랑 스와니에의 오너 셰프인 이준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쉐린 셰프들이 에어비앤비에서 온라인 체험을 통해 요리 클래스를 연다.

에어비앤비는 미쉐린 스타 셰프들의 온라인 체험 컬렉션을 선보인다. 이번에 시작하는 요리 체험은 게스트들에게 자신의 부엌에서 유명 셰프들의 독특한 레시피와 요리 기술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데이비드 장, 에드워드 리 셰프와 함께 멕시코 요리의 대가인 클로데트 제페다, 전 세계를 여행하며 요리하는 로제 트라오레는 에어비앤비의 '사회공헌 체험'으로 요리 체험을 공개하며, 각 체험의 수익금을 기부할 계획이다.



제주도. /스카이스캐너

## 스카이스캐너, 여름휴가 키워드는 #제주 #렌터카

여행기업 스카이스캐너가 올 5~6월 항공권 렌터카 검색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여름 제주도 지역의 항공권 검색 비중 및 렌터카의 검색량이 전년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스캐너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여행객이 지난 5월 가장 많이 검색한 상위 10개 노선 중 5개 노선이 모두 '제주'행 항공편으로, 1위 서울~제주도 노선 항공편 검색 비중은 전년 대비 33.9%포인트 급증했다. 그다음으로 부산~제주(+6.4%포인트), 청주~제주(+5.0%포인트), 대구~제주(+4.0%포인트), 광주~제주(+2.3%포인트) 노선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제주도행 특가 항공권 이벤트를 연달아 내놓은 것도 제주도의

인기가 전년보다 더 주목받게 된 요인으로 보인다.

제주 내 렌터카에 대한 관심도 눈에 띈다. 5월 25일에서 6월 21일 사이 약 한 달간 스카이스캐너에서 검색된 제주도 지역 내 렌터카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 익스피디아, 대세 호캉스 스타일은 '호텔족'·'새벽산책'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는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호캉스 경험 및 호캉스 중 하는 활동 등을 묻고 분석해 한국인의 호캉스 스타일을 정리해 최근 발표했다. 설문대상은 20세부터 39세에 해당하는 남녀 300명이다.

조사내용을 보면 한국인 '2039' 여행객 73%가 최근 3개월 내 호캉스를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34.2%는 체크인부터 체크아웃 시점까지 호텔 안에서만 머물렀으며, 9.6%는 아예 객실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잠깐의 산책을 위해서는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처럼 인적이 드문 시간을 이용했다(16.9%)고 답했다. 근교를 둘러보고 싶을 때는 대중교통(5.5%) 대신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21.9%)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



엔택트 여행 숙소로 소개된 힐튼 부산. /아고다

## 아고다, 국내 여행 활성화 '고로컬' 캠페인

디지털 여행 플랫폼 아고다는 아태지역 및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최대 규모의 '고로컬(GoLocal)' 캠페인을 진행한다.

호텔 파트너 수천여 곳이 본격적인 캠페인 사전 단계에서 참여했으며,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는 숙박업체는 최적의 국내 여행 상품을 찾는 여행객의 관심을 유도하는 다양한 채널 활용을 통해 여러 혜택을 얻게 된다.

최대 규모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고다는 '고로컬(GoLocal)' 프로그램을 위해 세일즈 및 마케팅 통합 캠페인 기획은 물론, 소셜 미디어 캠페인, 브랜드 디지털 홍보와 영상 콘텐츠, 주요 고객 대상 홍보 활동, 맞춤형 고객 마케팅, 전용 사이트 등도 준비했다.

'고로컬(GoLocal)' 캠페인에 참여하는 파트너 숙소는 국내 특별 할인가를 제공하고, 아고다는 자사의 다양한 상품과 캠페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이들 숙소를 알리게 된다.

여기에는 국내 여행을 위한 전용 사이트와 캠페인 참여 숙소임을 표시하는 '고로컬(GoLocal)' 표시 및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 활동이 포함된다. 아울러 주요 전문 업체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파트너 호텔 및 숙소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캠페인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민희 기자 lnh@metroseoul.co.kr

## 문화재청-한국문화재단

# "문화유산과 얽힌 이야기 들려주세요"

문화유산 스토리 공모전 개최  
해설·여행스토리 각 10건 선정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은 코로나 19의 피해로 침체된 관광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2020년 문화유산 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문화유산 향유에 적극적으로 힘쓰는 '문화관광 관련 해설 전문가'와 문화유산 관광 판로개척에 일조한 '국내·일반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설 전문가 대상의 해설 스토리 부문, 여행업체 대상의 여행 스토리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공모전은 7월 31일부터 8월 13일까지 접수를 받고 9월 4일 본선 PT발표와 시상식이 진행된다.

'2020년 문화유산 스토리 공모전'은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국내외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문화유산 방문캠페인'의 문화유산 방문코스(Korean Heritage 5+2)가 중심이 되어 해설 이야기, 여행 이야기를 찾아가는 공모전이다. 해설 스토리 부문은 '문화유산 방문



대구 달성군 도동서원 전경. /문화재청

캠페인'의 방문코스 중 택일하여 자기만의 참신한 해설·스토리 만들기가 주제이며, 참여는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의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제공되는 양식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

여행 스토리 부문은 문화유산 방문코스를 활용하여 실제 체험 가능한 매력적인 여행상품을 개발한다. 특히 방문코스 주변의 편의시설과 여행 스토리를 엮어 새로운 'Korean Heritage 관광 상품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된다.

시상은 부문 당 10건, 총 20건의 출품작으로 총 1850만원의 상금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문화재청장상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민희 기자

## 휘닉스평창

# 포레스트파크서 아이와 함께 여름휴가를

숲 속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키즈패키지

휘닉스 평창의 키즈 전용 패키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을 즐기는 가족들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마음 편히 뛰어놀 수 있는 휘닉스 평창 포레스트파크가 주목을 받고 있다.

포레스트파크는 강원도 태기산 아래 푸른 숲 속에서 자연을 벗삼아 힐링 여행을 할 수 있는 웰니스 쉼터다.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야외 놀이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초록빛으로 물든 포레스트파크에서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다.

휘닉스 평창의 프리미엄 키즈패키지는 포레스트파크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자연과 친해지고 난 후 호텔 스위트룸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포레스트파크 루지랜드. /휘닉스 평창

있다. 호텔 스위트 1박, 조식뷔페, 와인 마리아주, 엑스트라 베드와 키즈 플레이라운지 이용권이 포함되어 있다.

아이들은 친자연 소재로 만들어진 '실리만 키즈 마스크' 혹은 '실리만 식기세트 4종(식판+스푼포크+양손컵+빨대)'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주중 성인 2인+소아 1인 기준 32만원이며, 7월 16일까지 패키지를 예약할 수 있어 서둘러 예약하는 것이 좋다. /이민희 기자

## 코레일관광개발

# 리무진 타고 '엔택트 럭셔리 여행' 떠나자

소규모·비대면 VIP리무진 투어 출시

코레일관광개발은 소규모·비대면 중심이란 여행 트렌드 변화에 맞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떠날 수 있는 'VIP리무진 투어' 상품을 출시했다.

VIP리무진 2박3일 상품은 달리는 궁전이라 불리는 벤츠 스프린터(메르세데스)를 타고 최대 8명까지 동행하며, 지역별 5성급 호텔(리조트)숙박, 식사(간식), 입장료, 체험료 등 모든 즐길거리가 포함되어 우리나라 곳곳에 숨

겨진 맛과 멋을 찾아 떠나는 올인클루시브 고품격 여행이다.

또한,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담 가이드의 지역별 풍성한 해설과 차내에는 생활방역 전환 정부방침에 맞추어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비치하고 수시로 열 체크를 진행한다.

본 패키지는 매주 화요일 출발, 2박3일 남해권(남해, 통영, 거제) 코스로 금액은 1인 120만원이며, 시범 운영 후 전라권, 동부권, 전국일주 상품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민희 기자